




**중국국가여유국 서울지국**  
 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SEOUL OFFICE

The Timeless Beauty  
**자가계 가이드북**


**중국국가여유국 서울지국**  
 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SEOUL OFFICE

**The Timeless Beauty**

# **자가계** 가이드북

자가계




**중국국가여유국 서울지국**  
 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SEOUL OFFICE

# CONTENTS



## About Zhangjiajie



### 장가계 알아보기

|                    |    |
|--------------------|----|
| 체크리스트              | 06 |
| 교통편                | 09 |
| 장가계 개요             | 10 |
| 토가족 소개             | 12 |
| 장가계의 3대 쇼          | 14 |
| 이름으로 알아보는 장가계의 명소들 | 16 |
| 장가계 여행의 키워드 3      | 18 |
| Editor's Choice 5  | 20 |
| 전망 베스트 5           | 22 |
| 포토존 베스트 5          | 24 |
| 먹거리 베스트 5          | 26 |
| Editor's 추천 코스     | 28 |

## Travel Yongding Qu



### 영정구 | 永定区

|                   |    |
|-------------------|----|
| Editor's Choice 5 | 36 |
| 천문산               | 38 |
| 개요 및 일반정보         | 40 |
| 추천코스              | 41 |
| 별의별 액티비티          | 53 |
| 해방로               | 54 |
| 중상광장              | 56 |
| 대웅부성              | 60 |
| 호텔구역              | 66 |
| 기타지역              | 72 |
| 여행정보              | 85 |

## Travel Wulingyuan



### 무릉원 | 武陵源

|                   |     |
|-------------------|-----|
| Editor's Choice 5 | 90  |
| 국가삼림공원            | 92  |
| 개요 및 일반정보         | 94  |
| 추천코스              | 95  |
| 원가계               | 96  |
| 원가계 풍경구           | 106 |
| 황석채               | 108 |
| 금편계곡              | 116 |
| 천자산 풍경구           | 118 |
| 개요 및 일반정보         | 120 |
| 추천코스              | 121 |
| 식계욕 풍경구           | 128 |
| 개요 및 일반정보         | 130 |
| 추천코스              | 131 |
| 심리화랑              | 132 |
| 황룡동               | 134 |
| 보홍호               | 136 |
| 대협곡               | 138 |
| 무릉원 시내            | 142 |

## Travel Zhangjiajie

### 장가계 근교

|      |     |
|------|-----|
| 봉황고성 | 160 |
| 부용진  | 170 |
| 홍석림  | 174 |
| 먹용묘채 | 176 |







장가계  
 张家界  
 張家界

절세미경

“사람이 태어나서 장가계에 가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人生不到張家界，白歲豈能稱老翁?”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장가계의 경이적인 풍경은 오래도록 중국인들 사이에서 예찬되어 왔다. 대륙 최초의 국가삼림공원으로 지정되며 중국 내 위상을 높였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되며 중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지난 2009년 개봉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의 무대로 등장한 장가계는 자신의 이름을 새로운 경지에 올려놓았다. 마치 인간계를 넘어 신의 영역에 들어선 듯한 영화 속 장가계의 모습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견줄만한 풍경이 없다고 해도 과찬을 만큼 신비롭고 압도적인 모습이었다. ‘절세미경’이라는 표현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곳, 이미 그 풍경 속을 다녀간 수많은 여행객들이 그 위상을 인정한 곳, 기기묘묘한 자연의 산물과 더불어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현장, 장가계를 소개한다.



## 떠나기전

### Check Point



#### 비자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선 중국 비자 기관으로부터 신분과 방문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만 한다. 비자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과 중국인민공화국 비자신청서, 여권용 증명사진 등이 필요하며,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센터 또는 대행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전국에 총 네 곳에 중국 비자신청 서비스센터가 있다.

#### 중국 비자신청 서비스센터

**서울(서울스퀘어)** **A**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  
**T** 1670-1888  
**F** 02-6260-8855  
[www.visaforchina.org/SEL1\\_KO](http://www.visaforchina.org/SEL1_KO)

**서울(남산스퀘어)** **A**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3층  
**T** 02-750-7800  
**F** 02-750-9696  
[www.visaforchina.org/SEL2\\_KO](http://www.visaforchina.org/SEL2_KO)

**부산** **A**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2로 38 해운대아파트 C1 5층  
**T** 1670-1888  
**F** 051-920-0877  
[www.visaforchina.org/BUS\\_KO](http://www.visaforchina.org/BUS_KO)

**광주** **A** 광주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생명 누문동빌딩 7층  
**T** 062-529-1810, 062-606-8800  
**F** 062-529-1815  
[www.visaforchina.org/GWA\\_KO](http://www.visaforchina.org/GWA_KO)



#### 비자신청안내

**업무시간** : 월요일~금요일(토, 일, 공휴일 휴무)

**보통비자 접수시간** : 오전 9시 ~ 오후 3시

**급행비자(2일소요) 접수시간** : 오전 9시 ~ 11시 30분

**비자발급시간** : 오전 9시 ~ 오후 4시

**비자신청서류** : 여권, 신분증 복사본, 여권용 사진 1매, 비자신청서, 중국 호텔의 예약확인서, 왕복항공권 또는 경유항공권

#### info. 단체비자

단체비자는 5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2인 이상이 동일 왕복 항공편을 이용한다면 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15일 안에 입국, 28일 안에 출국해야 하지만 개인비자에 비해 가격이 반값 정도로 저렴하고 출입국카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공항 입국장에서 비자 사본에 나열된 순서대로 줄을 서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날씨

장가계는 아열대성 기후로 비가 오는 날이 많으며 습도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여행 기간 내내 해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을 갖고 있지만 여름에는 우리나라보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겨울에는 비교적 온도가 높은 편이다. 장가계의 여행지는 대부분 산 속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이 많아 시내에 비해 급격하게 온도가 낮아질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다. 우산과 우비 등은 항상 챙기도록 하자.

#### 환전

중국 인민폐를 사용하며 흔히 위안푼이라고 부른다. 장가계에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출국 전에 환전을 하고 비상용으로 신용카드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중국의 최대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 微信)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로 결제하는 방법도 편리하다. 한국인들도 한국 휴대폰 번호로 가입한 뒤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를 등록하거나 현금 충전 등을 통하여 사용 가능하다.

#### 전압

한국과 같은 220v를 사용하며, 플러그의 모양이 다르지만 호환 가능하다.

#### 시차

한국보다 1시간이 느리다.



#### 로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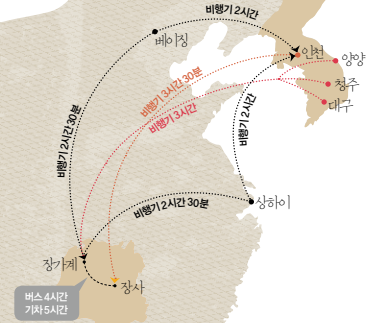
인천공항 출국장에 각 통신사 로밍센터가 위치해 있다. 중국의 경우 일반적인 데이터 로밍뿐만 아니라 각종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한 상품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출국 전에 모바일 와이파이, 유심칩 등을 미리 준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About Zhangjiajie

### 교통편



### 한국에서 장가계로

현재 인천-장가계 정기 직항 편은 없으며 여행사가 특정 기간 동안 종종 전세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항공편을 이용해 장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장사 공항으로 입국한 후<sup>3시간 30분 소요</sup>,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여 장가계로 들어가거나<sup>1~5시간 소요</sup>, 북경이나 상해로 입국 후<sup>약 2시간 소요</sup>, 장가계행 국내선<sup>2시간 30분 소요</sup>으로 환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항공사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장가계 공항에서 시내로

장가계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작은 규모의 공항으로 아직 공항버스나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 공항 밖 택시 승차장에서 시내까지는 약 10분~15분 정도면 충분한 거리로 요금 역시 큰 부담은 없지만, 택시기사들이 미터기를 켜지 않고 가격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 장가계 시내에서 무릉원으로

천문산을 제외한 장가계의 대표적 인 여행지들은 대부분 장가계시 무릉원구에 위치하고 있다. 장가계 공항에서 무릉원으로 바로 이동하는 교통편이 없어 먼저 택시를 타고 영정구에 위치한 장가계 버스터미널로 가야한다. 이곳에서 무릉원 행 버스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소요 시간은 약 50분 이고 요금은 12~20원이다.



## About Zhangjiajie



### 장가계 개요

장가계는 중국 호남성湖南省 북서쪽 무릉산맥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지급시地级市인 장가계시는 2개의 시할구인 영정구永定区和 무릉원구武陵源区, 그리고 2개 현인 자리현慈利县과 상직현桑植县 을 관할하고 있다. 장가계 역사의 시작은 BC2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대웅다용, 大庸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불리다가 1994년 장가계로 이름이 변경됐다. 1982년 9월 중국 최초로 국가삼림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88년 8월 무릉원우림위안, 武陵源이 국가 중요 자연풍경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1992년에는 국가삼림공원과 함께 천자산 풍경구와 삭계옥 풍경구 등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관광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장가계는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이 가장 찾고 싶어 하는 중국의 여행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장가계의 10%정도만이 개발되었다고 할 만큼 장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은 무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금도 장가계에 숨겨진 보석 같은 풍경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또한 각 풍경구의 케이블카를 비롯하여 유리다리, 절벽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여행객들을 위한 매력을 더해가고 있다.

### info. 장가계 이름의 유래

장가계라는 이름의 유래는 먼 옛날 한나라에서 찾을 수 있다. 한나라를 건설한 유방의 책사이자 개국공신이었던 장량張良은 유방에게 토사구팽 당할 것을 예견하고 질병을 핑계로 벼슬을 버린 뒤 지금의 장가계 깊은 산 속으로 은거했다. 하지만 유방은 장량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를 이곳까지 보냈는데 장량은 험준한 지형에 익숙한 이곳 토가족의 도움을 받아 유방의 군대를 물리쳤다. 결국 유방은 이곳이 '장량 일족의 땅張家界'임을 인정하게 됐고, 그 사건으로 장가계의 이름이 유래됐다고 전한다.





## About Zhangjiajie

### 토가족 소개



## 장가계의 사람들, 토가족

투자주 | 土家族

장가계는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토가족들이 긴 세월 살아오던 땅이다. 장가계가 속한 호남성은 중국 내에서 토가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토가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금도 전통을 지키며 살고 있는 그들의 생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의 토가족들은 장씨 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토사구팽을 피해 장가계의 깊은 산 속에 은거한 한나라의 장랑이 토가족들을 가르치고 이끈 결과로 토가족들이 그의 성을 따라 장씨 성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약 2천여 년 전부터 호남성 등에 거주하며 살아온 것으로 전해지는 토가족은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토가족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편곡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으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지역을 '노래의 바다' 歌的海洋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러한 토가족의 노래와 관련된 문화는 무릉원의 보봉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봉호에서 배를 타고 유람을 즐기는 동안 토가족 총각과 처녀의 청아한 사랑 노래가 호수에 아름답게 퍼진다. 여자와 남자가 서로 세 번씩 노래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오래된 전통이다.

장가계 시내의 토가풍정원土家风情园, 무릉원에서 펼쳐지는 매력상서쇼 등을 통해 토가족의 역사와 생활 및 제사문화, 춤과 노래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으며, 곳곳에서 토가족의 전통음식도 맛볼 수 있다.







## About Zhangjiajie

### 장가계의 3대 쇼

장가계 여행의 묘미 중 하나로 매일 저녁 곳곳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쇼를 빼놓을 수 없다. 웅장한 무대와 숙련된 연기자들의 뛰어난 퍼포먼스, 장가계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흥미로운 구성과 스토리까지, 장가계의 저녁은 감동적인 무대와 함께 하는 것이 정답이다.



#### 천문호선쇼 티엔먼후셴 | 天門狐仙

중국 영화계의 거장 장예모 감독이 제작에 참여한 뮤지컬 형식의 공연으로 인간 세상의 사랑을 갈망하는 여우와 마을 청년의 사랑 이야기를 전한다. 웅장한 천문산의 바위절벽을 배경으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엄하고 신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아름다운 춤과 음악 그리고 500여 명에 달하는 배우들이 무대를 중형무진하며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무대는 장가계의 밤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물들이기에 충분하다. 한글 자막이 제공되어 공연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 연우장가계 연위팡자제 | 烟雨张家界

황룽둥 초입의 전용 공연장에서 열리는 연우장가계쇼는 비교적 소규모의 공연장에서 아가자기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토가족 청년과 묘족 처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민속공연으로 10단락으로 구성되어 90여 분간 진행되며, 로맨틱한 스토리와 함께 소수민족의 문화를 재연해낸 공연으로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다양한 가무와 서커스가 결합된 화려한 진행으로 지루할 틈이 없다.



#### 매력상서 메이리상시 | 魅力湘西

무릉원을 대표하는 공연인 매력상서는 상서 지역의 노래와 춤으로 이루어진 한편의 대서사시를 펼쳐 보인다. 역동적인 율동과 웅장한 북소리 등을 통해 상서지방 내 소수민족들의 독특한 결혼 및 장례 문화, 종교 생활 등을 연출한다. 총 4개의 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극의 중간 중간 사회자가 등장해 관람객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갖는다. 실내 공연이 끝나면 야외무대에서 차력 쇼와 같은 또 다른 공연을 선보인다.







## About Zhangjiajie



### 천문동

티엔먼동 | 天門洞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천연 석회암 동굴로 천문산의 웅장함에 방점을 찍는 곳. 1999년에 개최된 세계 에어쇼에서 경비행기 4대가 동시에 천문동을 통과하는 진기한 장면이 펼쳐지며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바위 절벽 한가운데에 높이 130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구멍이 시원하게 뚫려 있는 모습이 이름 그대로 '하늘로 향하는 문', 즉 '천문'처럼 느껴진다.



### 선녀산화

시엔뉘산화 | 仙女散花

천자산에는 선녀의 모습을 한 바위가 있다. 선녀가 꽃바구니를 들고 세상에 꽃을 뿌리는 형상을 한 '선녀산화'. 바위 위로 도려낸 선녀의 얼굴 윤곽이 드러나고 바위 위에 자란 소나무는 머리 장식, 오른편 작은 바위 위에 자란 소나무는 여지없이 꽃이 된다. 이 선녀산화에는 먼 옛날 토가족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슬픔에 눈물을 삼키며 온 산의 꽃을 모아 뿌리며 그대로 돌로 굳어버린 이야기이다.



### 어필봉

위비평 | 御筆峰

선녀산화 반대쪽에는 어필봉이 있다. 우뚝 솟아 있는 세 봉우리의 바위 위에 푸른 소나무가 자란 모습이 마치 붓을 거꾸로 꽂아 놓은 모양을 닮았다. 명나라와 토가족 간의 혈투에서 최후를 맞게 된 토가족의 지도자 항왕천자가 자결하기 전 그가 쓰던 붓을 하늘을 향해 집어던졌는데 그 붓이 땅에 꽂혀서 만들어진 봉우리라는 의미로 어필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한다.

## 이름으로 알아보는 장가계의 명소들

여느 여행지에서도 흔히 경험하는 일이지만, 장가계를 여행하는 동안 멋진 풍경과 함께 붙여진 그럴싸한 이름을 꽤나 자주 만나게 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하고 이해가 되면서 소소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곳들. 장가계에는 아직 이름을 갖지 못한 곳도 바위기둥들도 많으니 자신만의 이름을 붙여본다면 여행의 흥미가 더해지지 않을까.



### 채약노인암

차이아오라오런옌 | 採藥老人巖

십리화랑에는 '약초 캐는 노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위 채약노인암이 있다. 진귀한 약재가 가득 담긴 광주리를 등에 지고 노인이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는 듯한 형상이 마치 살아있기라도 한 듯 절묘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얼굴에 열은 미소를 머금고 시선은 산을 향한 채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다.



### 삼자매봉

싼제메이펑 | 三姐妹峯

십리화랑의 또 다른 볼거리인 삼자매봉은 나란히 서 있는 세 개의 거대한 봉우리이다. 이 세 개의 봉우리들이 마치 세 명의 자매를 닮았는데 각각의 특징이 있다. 왼쪽에 서부터 아기를 안고 있는 첫째 언니, 아기를 업고 있는 둘째 언니, 마지막으로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는 막내의 형상이 흥미롭다.



### 천연장성

티엔란창청 | 天然長城

가장 최근에 개발된 곳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양가계에는 천연 장성이 있다. 날선 바위들이 켜켜이 솟아올라 2층, 3층으로 성벽을 이루는 모습이 그 어떤 적의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천하의 요새를 닮았다. '자연이 만든 큰 성'이라는 뜻을 지닌 천연장성이라는 이름이 정말 그럴듯하게 느껴진다.





## About Zhangjiajie

### 장가계 여행의 키워드 3

한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중국 여행지 1위에 빛나는 장가계 여행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선정했다. '신선들의 정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환상적인 풍경이 장가계 여행의 첫 번째 키워드이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그들의 문화를 지켜온 토가족들이 두 번째이다. 마지막으로 장가계의 밤을 더욱 환하게 빛내줄 다양한 쇼를 장가계 여행에서 놓쳐서는 안 될 세 번째 키워드로 꼽았다.



1

#### 풍경

장가계 여행의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풍경이다. 거대한 대륙에서도 최고의 풍경으로 인정받는 장가계의 기이한 모습은 누구나 탄성을 지를 만큼 이색적이고 신비스럽기까지 하다. 장가계로 여행을 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산 속에 숨겨진 거대한 바위기둥과 절벽들의 장관을 감상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신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자못 궁금해지기까지 하는 장가계의 우주적인 풍경은 우리가 꼭 한 번은 봐야 할, 그리고 한 번 보면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풍경임에 틀림없다.

2

#### 토가족

장가계 여행지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토가족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독특함이 가득 느껴지는 그들의 전통복장을 입고 장가계를 찾아온 여행객들을 맞이한다. 곳곳에서 마주치는 토가족의 퍼포먼스와 문화는 바빠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꼭 둘러보아야 할 장가계 여행의 '머스트아 이템'이나 다름없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장가계 여행은 조금 더 풍요롭고 흥미롭게 가슴 속에 닿을 것이다.



3

#### 쇼

장가계의 3대 쇼로 일컬어지는 천문호선쇼, 매력상서, 연우장가계는 온종일 산 속을 누비며 천하절경을 즐기느라 피곤해진 몸을 쉬어가며 편안하게 장가계의 멋을 음미하는 시간이다. 대륙의 스케일을 느낄 수 있는 웅장함과 무대장식, 대규모 연기자들의 화려한 의상과 군무, 설 새 없이 이어지는 극의 긴장감 등 모든 면에서 수준급 이상인 쇼를 관람할 수 있다. 장가계에서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쇼가 열리는 공연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자.





## Editor's CHOICE



### 천문동&상천제

티엔먼동&상티엔띠 | 天門洞&上天梯

높이 약 130m, 폭 57m의 거대한 바위 절벽을 뚫고 형성된 천문동은 천문산을 넘어 장가계를 대표하는 볼거리라고 할 수 있으며 '하늘로 향하는 문'이라는 이름에서 천문동의 위엄이 오롯이 느껴진다. 천문동에서 천문동광장까지 길게 이어진 상천제는 경사가 매우 급해 공포감마저 느껴지지만 천문동을 제대로 감상하고 싶다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코스이다.

1



### 원가계 위엔자제 | 袁家界

원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비현실적인 풍경을 자랑한다. 영화 <아바타>에 등장하는 판도라 행성의 모티브가 된 곳으로 장가계가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여행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된 곳이다. 자연이 만든 걸작 천하제일교를 비롯해 아바타의 그곳 건곤주, 중후하고 장대한 모습이 강한 인상을 남기는 백장절벽, 팔진도와 무후봉, 백장절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삼관대까지 어느 곳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명소이다.

2



3

### 황룡동굴 황룡동 | 黃龍洞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유동굴이자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용암 동굴. 우후죽순 솟아난 석주와 석봉이 펼쳐 보이는 지하의 별천지는 장가계에서 가장 독창적이면서 압도적인 풍경으로 끊임없이 시선을 강탈한다.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로 선정되기도 한 곳으로 정해신림과 같은 값비싼 자연의 신비를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다.



4

### 십리화랑 소리화랑 | 十里画廊

'10리에 걸쳐 이어지는 화랑'이란 뜻의 십리화랑은 10리에 이르는 협곡 사이의 계곡을 따라 각양각색의 기이한 봉우리와 암석들이 줄을 지어 펼쳐진다. 유일하게 모노레일이 운행하고 있어 10리 길을 보다 편리하게 유람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 십리화랑에는 '삼자매봉', '채약노인암' 등의 볼거리들이 기다리고 있다. 다른 풍경구와 비교해 비교적 여성적인 섬세함이 돋보이는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5

### 봉황고성 평항구청 | 鳳凰古城

장가계를 찾은 여행객들이 가장 욕심내는 근교여행지 1순위로 꼽는 봉황고성은 후난湖南성 상시 토가족묘족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가계에서 차로 약 4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다. 중국의 4대 고성으로 꼽히지만 흔히 떠올리는 고성의 고즈넉한 풍경보다는 밤이 되면 180도 변신하는 밤의 화려한 풍경이 더욱 매력적인 곳. 차분한 낮과 무아지경의 밤이 공존하는 현장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여행지이다.





## BEST VIEW



### 천문산 케이블카

타옌먼산췌다오 | 天门山索道

영정구 도심에서 출발해 천문산 정상부까지 이어지는 약 7.5km의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의 케이블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약 30여 분간 장가계 시내와 천문산의 변화무쌍한 풍경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 유리잔도

보리판짜오 | 玻璃栈道

천문산의 유리잔도는 절벽에 만들어진 좁은 보행로로 바닥을 발아래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유리로 만들어놓아 공포감이 가득하다. 이 길을 걸으며 바라보는 천문산은 유리잔도의 공포감을 순식간에 잊게 해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선보인다.

1 천문산 케이블카 2 유리잔도 3 백장절벽  
4 삼관대 5 전화원



### 백장절벽

바이팡췌에비 | 百丈绝壁

천자산에서 양가계를 거쳐 원가계로 접어들 때 처음 만나게 되는 거대한 암벽으로 길이가 백 장(丈, 약 300m)에 이른다. 원가계의 섬세한 풍경 속에서 백장절벽은 유독 눈에 띄는 중후하고 장대한 장관을 연출하며 이곳을 찾은 여행객들에게 그만큼 강한 인상을 남긴다.

### 삼관대

싼관타이 | 三观台

원가계의 삼관대는 팔진도와 무후봉 그리고 백장절벽까지 3곳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이다. 수없이 솟아오른 기기묘묘한 돌기둥들이 마치 전쟁터의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팔진도, 그 팔진도의 모습을 더욱 잘 감상할 수 있는 무후봉(武后峰), 그 옆 백장절벽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펼쳐진다.

### 전화원

치옌화위엔 | 前花园

황석채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전화원은 마치 꽃망울이 피어나는 것 같은 형상을 한 봉우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많은 장가계 가이드들이 최고의 전망으로 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황석채에서 원가계 쪽을 바라보는 풍경이다.



## BEST Photo zone



### 현수교 쉬안썩치야오 | 悬索桥

천문산 서쪽선 귀곡잔도가 끝나고 곧 해발 1,400m 높이에 지어진 약 150m 길이의 현수교가 나타난다. 절벽과 절벽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쇠줄과 나무로 설치해놓은 현수교는 길을 때마다 출렁거리며 짜릿함을 선사한다. 현수교 아래로 펼쳐진 천문산의 비경을 감상하며 구름 위를 두둥실 떠다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보자.

### 건곤주

차옌쑤쑤 | 乾坤柱

영화 <아바타>에 나온 할렐루야산의 모티브가 된 돌기둥인 건곤주는 장가계에서 가장 유명한 풍경 중 하나로 손꼽힌다. 건곤주를 감상하는 전망대에는 <아바타>에서 나비족이 타고 다니던 새 조형물이 있어 새를 타고 하늘을 나는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이들이 줄을 선다.

### 대협곡유리다리

따샤구보리치야오 | 大峡谷玻璃桥

높이 약 300m, 길이 약 430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긴 투명 유리다리. 대협곡 대표 볼거리이자 장가계 최고의 공포 체험 장소로 자리매김한 유리다리에 올라 가면 발아래로 수백 미터 높이의 낭떠러지가 펼쳐진다. 그 위에서 점프를 하며 생애 가장 용감한 사진을 남기는 이들이 많다. 카메라는 반입이 불가하므로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해야 한다.

### 부용진폭포

푸룽썩썩 | 芙蓉镇瀑布

부용진폭포는 높이 60m, 넓이 40m의 규모로 2단으로 나누어져 쏟아지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흑자들은 부용진을 '폭포에 걸려있는 천년고진'으로 부르기도 하며, 폭포가 쏟아지는 절벽 아래의 통로를 통해 폭포 밑을 지나갈 수 있다. 거칠게 떨어지는 물줄기를 옆에 두고 남기는 한 장의 사진은 특별한 장면을 선사한다.

### 남화교

남화교 | 南华桥

봉황고성 여행의 시작점이자 최고의 야경 포인트. 그 규모와 높이가 꽤 크고 높아서 교각 위에 올라서면 아찔한 기운이 느껴질 정도이지만 알록달록한 조명들이 하나 둘 불을 밝히고 타강 위를 비춰 세상이 오색찬란하게 옷을 갈아입게 되면 남화교가 선사하는 풍경은 세상 어느 곳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 최고의 야경 사진 포인트.



1 현수교  
2 건곤주  
3 대협곡유리다리  
4 부용진폭포  
5 남화교





## BEST Food



### 1 흥반황제대 초판황때따 | 吃饭皇帝大

영정구 시내의 중상광장 5층에 위치한 '밥 먹을 때는 황제처럼'이라는 이름을 가진 토가족 전통음식점.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요리는 초밥라는 이름의 물고기와 건두부, 고추 등을 넣고 끓여낸 '시화도초어柴火稻草魚'와 큰 명절에만 주로 맛볼 수 있던 여덟 가지 고추, 족발, 닭발, 소등뼈 등을 넣어 만든 '토사대년채土司大年菜', 걸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서시두부한자西施豆腐丸子' 등이 있다.

## 2

### 란회소 란후이썬 | 兰会所

대용부성 입구에 위치한 카페 겸 바. 전통 문양의 로고와 달리 세련미가 물씬 느껴지는 입구와 주인 부부가 함께 바이크 여행을 하며 찍은 흑백사진들, 노출된 천정과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은색 환풍구 등이 전체적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와인과 카페, 전통차, 과일주스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손님이 모두 돌아갈 때까지'이다.



## 3

### Moon & Lotus

파사엔화관 | 发现花园

장가계에서 가장 예쁘고 특색 있는 카페이자 와인스토어 그리고 플라워 숍을 겸한다. 화이트 톤 바탕에 목재로 된 가구와 난간의 조합은 세련되면서도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물씬 풍겨내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와인병과 옛날 집에서 구해온 오래된 나무와 가구들은 빈티지한 감성을 책임진다. 요리는 웨스턴 풍의 메뉴가 주를 이루며 커피의 품미 또한 수준급.



## 4



## 5

### 화궁전 화풍따옌 | 火宫殿

1577년에 건립된 화궁전은 과거 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장소로 청나라 말기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종교, 음식, 민속, 예술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대중문화공간이었다. 2015년 시부거리에 새롭게 문을 연 화궁전은 불의 궁전이라는 이름과 어울리도록 나무와 기와를 주로 이용해 건물을 세우고 빨간 풍등과 깃발로 꾸몄다. 장사 정통 취두부臭豆腐와 탕유파파糖油粿 등의 향토음식이 대표메뉴. 삼화과, 민물고기전골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된다.

### 가고파 천하 티엔시아샤오카오 | 天下烧烤

조선족 주인장이 운영하는 양꼬치 전문점. 주인장은 한국에서도 동명의 식당을 운영했었으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인의 입맛과 기호를 정확히 맞춰준다. 양고기는 특별히 잔내가 없고 담백해 이 집의 대표 메뉴로 손색이 없다. 이외에도 조개관자, 문어빨판볶음 등 중국식과 한국식, 조선족의 음식이 골고루 섞여있는 메뉴들이 많다.



## Travel Course



### Editor's 추천 코스

장가계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 일정을 계획하기가 무척 어려운 여행지이다. 때문에 장가계 여행을 계획할 때 산행이 예정된 날의 오전시 대체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정이 넉넉하지 않다면 장가계의 여러 풍경구를 보다 여유있게 돌아볼 것인지, 일부 풍경구와 근교여행지를 다녀올 것인지 지도 결정해야 한다. 봉황고성 등의 근교여행은 2일을 추천하지만 하루 만에 부지런히 다녀올 수도 있으니 참고하자.

## 3박 4일 추천 코스

가장 일반적인 코스로 근교여행지를 제외한 장가계의 핵심만을 둘러보는 코스이다. 천문산과 무릉원의 여러 풍경구를 둘러보고 아간에는 쇼를 관람하는 일정이다.



### 1st Day

한국에서 장가계로 이동

- 1 장가계 영정구 시내 둘러보기
- 2 시내에서 저녁식사
- 3 천문호선소 관람



### 2nd Day

무릉원

천자산과 양가계. 원가계는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어 하루 일정으로 함께 다녀오는 것을 추천한다. 무릉원 입구에서 시작하여 천자산 그리고 양가계와 원가계를 먼저 둘러본 뒤, 체력과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금편계곡과 황석채까지 함께 다녀오는 코스를 소개한다.

- 1 무릉원 입구로 이동
- 2 천자산
- 3 양가계
- 4 원가계
- 5 금편계곡
- 6 황석채
- 7 무릉원에서 숙박
- 8 매력상서 관람



### 3rd Day

무릉원

오전 일정으로 이른 아침 안개가 운치 있는 보봉호에서 유람을 즐기고 심리화랑까지 다녀오는 것이 좋다. 오후에는 대협곡과 함께 황룡동을 둘러볼 수 있다. 대협곡과 황룡동은 거리상 가까워 함께 둘러보는 것이 효율적이며 연우장가계 공연장이 위치한 황룡동을 마지막 코스로 잡는 것이 좋다.

- 1 보봉호수로 이동 후 유람선 탑승
- 2 심리화랑으로 이동하여 모노레일 탑승
- 3 대협곡에서 유리다리 체험 및 트레킹
- 4 황룡동으로 이동 후 내부 관람
- 5 저녁식사
- 6 연우장가계 관람
- 7 무릉원에서 숙박



### 4th Day

천문산

- 1 천문산 입구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천문산 정상으로 이동
- 2 서쪽선에서 동쪽선으로 이동하며 천문산 여행
- 3 연도만에서 점심식사 후 동쪽선 여행
- 4 천문동으로 하산
- 5 장가계에서 항공, 버스 등으로 이동 후 항공편으로 귀국





## 추천코스+근교여행지

3박 4일 코스에 1일 또는 2일을 추가하여 봉황고성 등의 근교여행지를 다녀오는 코스, 낮과 밤을 모두 보아하는 봉황고성 여행을 위해 2일 일정을 추천한다.

### 4th Day

#### 천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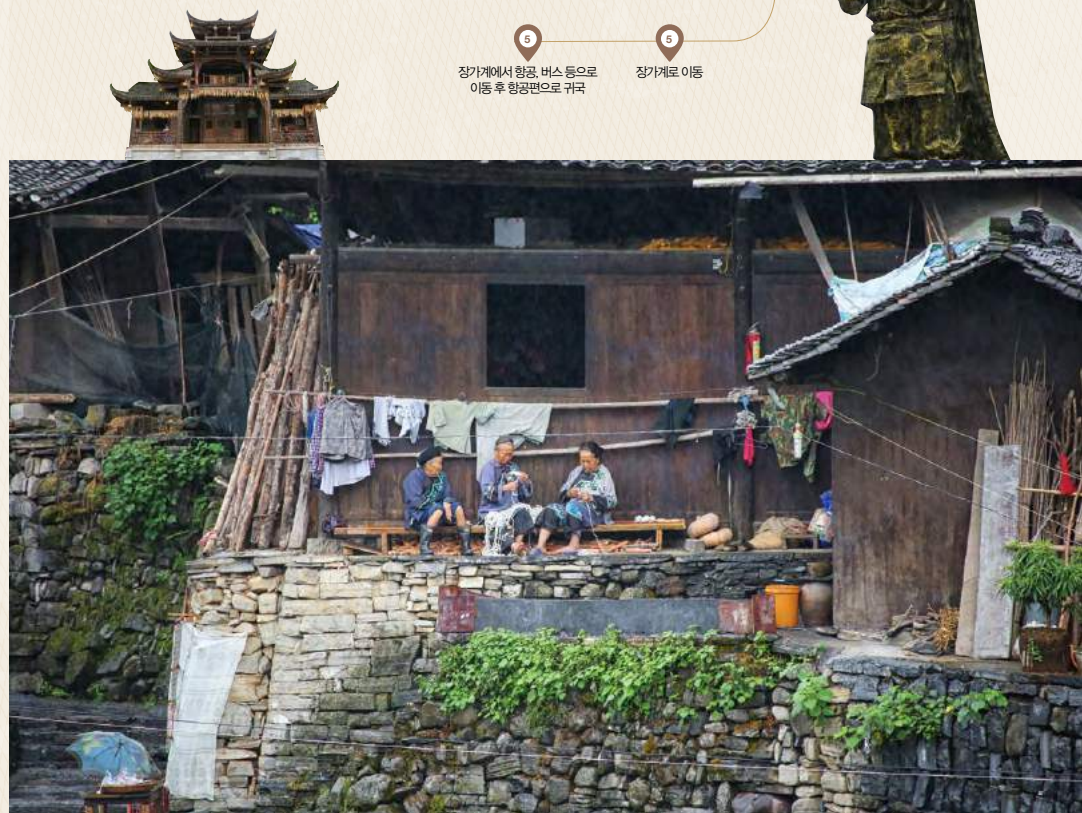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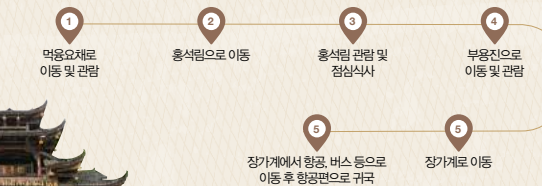
### 5th Day

#### 봉황고성



### 6th Day

#### 먹용요채, 홍석림, 부용진





장가계시의 중심

# 영정구

룽딩취 | 永定区

장가계시는 2개의 시할구인 영정구와 무릉원구武陵源区, 그리고 2개 현인 자리현慈利县과 상직현桑植县을 포함하고 있는 지급시이다. 영정구는 실질적인 장가계의 중심으로 장가계시 인민정부와 장가계 공항, 기차역 등과 같은 장가계시의 주요 행정기관과 시설들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장가계시까지 직항편이 없어 북경과 상해 등을 경유하여 국내선으로 장가계 공항에 들어가거나 장사長沙 등지에서 버스과 기차 등으로 찾아갈 수 있다. '장가계의 혼'이라 불리는 천문산의 웅장한 산세가 영정구를 감싸 안은 채 뛰어난 풍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천문산으로 오르는 세계 최장 길이의 케이블카가 영정구 도심 위를 가로질러 운행되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짧은 일정 내에 장가계의 여러 풍경구를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영정구에도 소수민족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토가족풍정원, 모래그림으로 유명한 군성화원, 오랜 역사를 가진 대옹부성 그리고 이 지역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 등 농치기 아쉬운 볼거리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



▲ 무릉원 방향(30km)





## Editor's CHOICE



### 천문동 & 상천제

티엔먼둥 & 상티엔띠 | 天門洞 & 上天梯

천문동은 거대한 바위 절벽을 뚫고 형성된 높이 약 130m, 폭 57m의 거대한 동굴로 천문산을 넘어 장가계를 대표하는 볼거리라고 할 수 있다. 천문동에서 천문동광장까지 길게 이어진 상천제는 경사가 매우 급해 공포감마저 느껴지지만 천문동을 제대로 감상하고 싶다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코스. 도저히 도전할 자신이 없다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자.



2

### 천문산 케이블카 티엔먼산 쉼다오 | 天門山索道

영정구 도심에서 출발해 천문산 정상부까지 이어지는 약 7.5km의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의 케이블카. 케이블카 탑승 장소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약 30여 분 간 케이블카에 앉아 끊임없이 이어지는 장가계 시내와 천문산의 변화무쌍한 풍경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3

### 유리잔도 보라판따오 | 玻璃栈道

절벽에 만들어진 좁은 보행로. 바닥을 발아래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유리로 만들어놓아 공포감에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돌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0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니 마음 놓고 하늘을 걷는 듯한 짜릿한 기분을 만끽해보자.



4

### 토가족풍정원

투자주평칭위엔 | 土家族风情园

장가계는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토가족의 땅이다. 토가족풍정원은 긴 세월 토가족의 문화와 풍습을 모아놓은 박물관이자 민속원으로 본격적인 장가계 여행에 앞서 한 번쯤 둘러본다면 좀 더 쉽게 장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보다 흥미로운 여행의 시작을 위한 준비 코스.



5



### 대용부성 따용푸청 | 大庸府城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영정구의 핫플레이스. 장가계의 옛 풍경과 정취를 품고 있는 오래된 건축물들이 작은 단지를 이루고 있으며, 세련된 레스토랑과 카페, 바, 객잔 등이 건물 안을 가득 메우고 있다. 배낭여행객들을 위한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숙소도 많아 외국여행객들 역시 많은 곳. 여유로운 저녁 한 잔하기 위해 들르면 좋다.







장가계의 혼,  
**천문산**

티엔먼산 | 天門山

천문산은 매일같이 수많은 여행객들이 몰려드는 장가계의 대표 여행지로 '장가계의 혼' 또는 '상서湘西 최고의 신산神山'으로 불린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천문산의 옛 이름은 송량산嵩梁山으로 역사서에 중국 상고시대의 순임금이 자유롭게 송산崇山 돌아보기를 좋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삼국시대 263년 절벽이 무너지면서 바위 산 가운데가 뚫린 모양의 천문동이 생겨났고, 오왕 손휴가 이를 길조로 여겨 하사한 이름이 바로 천문산天門山. 해발 1,518m인 천문산은 장가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를 타고 30분 정도 유유히 날아가 본 격적인 천문산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대부분 평지를 걷는 코스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볼거리로 천문동과 통천대도, 유리잔도와 귀곡잔도 그리고 천문산사 등이 있다.





## About Tianmen Mountain

### 개요 및 일반정보

#### 천문산 입구까지

장가계 기차역에서 케이블카와 버스를 탈 수 있는 천문산 입구까지는 약 1.2km 떨어져 있다. 도보 15분 정도면 도착하는 부담 없는 거리를 걸으며 장가계 시내 풍경을 잠시 둘러봐도 좋다. 버스 13번, 10번, 1b번 또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 천문산 입구

천문산 입구의 매표소 또는 자동발권기를 이용해 천문산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입장권 가격에는 케이블카 및 셔틀버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 짐 보관소와 대기실, 여행안내소, 우편함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천문산 헬기투어를 이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위치** 永定区官黎坪天门山国家森林公园内

**천문산 입장료** 258원

**케이블카 운영시간** 3월~11월 08:00~16:30 / 12월~2월 08:00~16:00

#### 케이블카와 셔틀버스를 조합한 천문산 코스 3

천문산 케이블카는 왕복이 아닌 편도 한 방향만 이용 가능하다. 끝도 없이 밀려드는 여행객들로 인한 정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으로 케이블카를 타지 않을 때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3가지 방법으로 다녀올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여행객은 A코스를 이용한다.

**A코스** 올라갈 때 케이블카를 이용하고 내려올 때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방법

**B코스** 올라갈 때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내려올 때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방법

**C코스** 셔틀버스로 왕복하는 방법

#### 천문산 케이블카

티엔먼산쑤다오 | 天门山索道

총 길이 약 7.5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 높이에 따라 시간각각 변화하는 장가계 시내와 천문산의 풍경을 감상하다보면 어느새 30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정상에 도착한다. 산중턱에 걸려있는 구름을 뚫고 올라가며 내려다보는 천문산의 절경은 장가계의 모든 케이블카 중 단연 으뜸이라 할만하다. 때문에 내려올 때보다 올라갈 때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천문산을 모두 둘러보고 난 후, 내려가는 케이블카에서 보는 풍경보다 분명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이다.

#### 셔틀버스

수십 대의 셔틀버스가 천문산 입구와 천문동 주차장을 잇는 구불구불한 통천대도를 이슬이슬하게 달리며 여행객들을 실어 나른다. 케이블카에서 바라보는 풍경과는 또 다른 절경이 차창 밖으로 펼쳐져 케이블카보다 셔틀버스가 더 인상적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내려갈 때 이용할 것을 권한다.



## Editor's COURSE

### 추천코스

천문산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오르면 서쪽선과 동쪽선 두 방향으로 코스가 나뉜다. 보다 효율적인 여행을 위해서는 서쪽선에서 시작해 동쪽선에서 마무리하는 코스를 추천한다. 유리잔도에 큰 매력을 못 느낀다면 서쪽과 동쪽 중 한 곳만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리프트를 이용해 천문산에서 가장 높은 운몽선정 雲夢仙頂을 다녀와도 좋다.







## **유리잔도** 보리짚따오 | 玻璃栈道

험한 바랑이나 절벽에 만든 길 잔도. 2011년에 완공된 천문산 유리잔도는 해발 1,400m 높이의 절벽에 투명 강화유리로 제작한 좁은 통로로 1,0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60m의 짧은 거리이지만 발밑의 투명 유리와의 허리 높이의 난간 너머로 동시에 천 길 낭떠러지가 펼쳐지는 순간 아찔함이 밀려든다. 공포감에 몇 발자국 걷지 못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 유리잔도가 아닌 일반 산책로도 있으니 고소공포증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케이블카로 정상에 도착하면 서쪽선 유리잔도를, 셔틀 버스를 이용 천문동을 거쳐 올라오는 코스에서는 동쪽선 유리잔도를 먼저 만난다. 유리잔도 체험비용은 5위안이며 미끄러짐과 유리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덧신을 신어야 한다. 유리잔도의 마지막 지점을 통과할 때, 포토타임이 기다리고 있다. 통과하는 모든 이들의 사진을 전부 촬영하고 있으니 카메라를 보고 멋진 포즈를 연출할 것. 포토 부스에서 자신의 사진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구입 가능하며 가격은 20위안이다. 한편에서는 토가족의 전통 의상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대여소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가격은 10위안.

**운영시간** 08:00~16:30





고의 인재들을 양성했던 귀곡자가 은둔했던 동굴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 난간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까마득한 풍경과 절벽과 절벽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잔도의 모습이 걷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하지만 귀곡잔도를 걷는 동안 끊임없이 눈과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천문산의 비경에 발걸음을 멈출 줄 모른다.

## info

## 귀곡자 귀이구쯔 | 鬼谷子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사상가. 귀곡 지방에 은둔하였기 때문에 귀곡자라고 불렸다. 진초, 초, 연, 조 등 7국이 천하의 패권을 다투던 시대에 정치적 책략으로 당시 국제외교 무대에서 활약했다. 강국 진나라에 대적하기 위해 나머지 6국이 연합하는 합종책(縱策)을 주장한 소진과 진나라를 중심으로 6국이 동맹을 맺는 연횡책(衡策)을 주장한 장의(張儀)가 귀곡자의 제자로 알려져 있으며, 저서로는 「귀곡자」 1편이 전해지고 있으나 귀곡자 본인의 저작 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귀곡잔도 귀이구쯔따오 | 鬼谷棧道

유리잔도에 앞서 2008년에 만들어진 귀곡잔도는 유리잔도와 함께 천문산을 대표하는 절벽길이다. 해발 1,400m의 절벽과 절벽 사이의 바위에 구멍을 뚫고 가로막을 끈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귀곡잔도의 폭은 겨우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다. 귀곡(鬼谷)이라는 이름에서 그대로 느껴지듯 '귀신이 나오는 으스스한 길'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본래 기원전 4세기 손자병법을 쓴 '손자'의 직계 제자 중 당대 최





## 현수교 쉬웁썩치아오 | 悬索桥

서쪽선 귀곡잔도가 끝났다고 안심하기엔 아직 이른다. 귀곡잔도가 끝나고 짧은 오솔길을 지나면 해발 1,400m 높이에 지어진 약 150m 길이의 현수교가 눈앞에 나타난다. 절벽과 절벽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쇠줄과 나무로 설치해놓은 현수교는 걸을 때마다 출렁거리며 유리잔도와는 또 다른 짜릿함을 전해준다. 하지만 유리잔도나 귀곡잔도 보다는 공포감이 덜 한 편이니 현수교 아래로 펼쳐진 천문산의 또 다른 비경을 놓치지 말 것. 천천히 풍경을 감상하며 구름 위를 두둥실 떠다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잊지 말자.



## 패합 바이허 | 排合

서쪽선 귀곡잔도에서 천문산사로 가는 길에 흥미로운 구조물이 나타난다. 하늘과 땅에 대한 귀곡자의 철학사상을 담아 지은 패합이 바로 그것. 전국시대의 전략서 「귀곡자」 첫 장의 제목이 바로 ‘패합’이며, 패합의 ‘패’는 ‘열림’을 의미하고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개방된 공간과 밝은 양의 기운을 묘사한다. ‘합’은 ‘폐쇄’를 의미하며 음의 기운을 묘사한다. 패합 내부에 움직이는 나무 기둥들은 서로 반대되는 음과 양, 하늘과 땅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치를 표현한 것. 마치 미로와 같이 복잡한 구조물 안에서 잠시 그 오묘한 진리를 찾아보는 낯설고 어렵지만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다.



## 앵도만 잉타오완 | 櫻桃灣

서쪽선과 동쪽선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섬터로 간단히 요가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다. 과거 이곳에 야생의 앵두나무숲이 있어서 앵도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먼 옛날 팔선 八仙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푸른 하늘 아래 앵두가 익어 있는 경치에 매료되어 머물다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앵도만 식당에서는 도 시락과 햄버거, 옥수수 등 몇 가지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한다. 야외테이블 옆으로 멋진 풍경이 펼쳐져 식사가 더욱 맛스러워지는 곳. 주변으로 주전부리와 음료수를 파는 매점과 기념품 가게 등이 자리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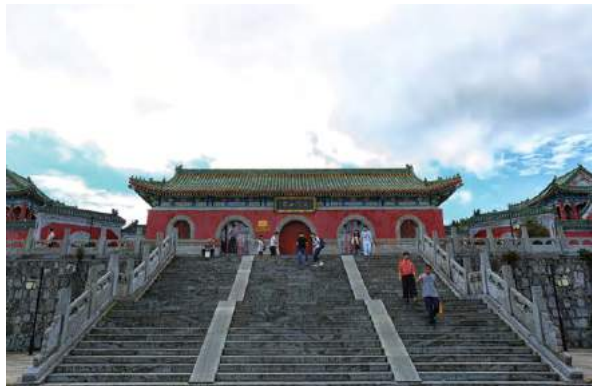






## 📷 천문산사 티엔먼촨쓰 | 天门山寺

서쪽선 잔도와 동쪽선 잔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남성湖南省 불교의 중심으로 해마다 석가탄신일이 되면 어마어마한 인파가 이곳에 몰린다. 당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며 명·청대에 많이 훼손되었으나 2006년 호남성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재건되어 현재는 중국 10대 사찰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별한 행사가 없는 날 천문산사에 들어서면 천문산의 다른 유명 스님들과는 달리 사찰 특유의 호젓한 정취가 흘러 조용히 둘러보기에 좋다. 천문산사 입구에서 천문산의 정상인 운몽선정까지 연결되는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다.



## 📷 운몽선정

원명시엔딩 | 雲夢仙頂

천문산에서 가장 높은 1518m에 자리 잡고 있는 누각으로 천문산사 입구에서 리프트를 타고 이동하거나 천문산 케이블카 정상 종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천문산 주변 16개 봉우리와 시내 전경 그리고 멀리 무릉원구의 풍경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다.



## 📷 산림관광리프트

산림관광란처 | 山林觀光纜車

천문산 케이블카 정상에서 운몽선정까지 이어지는 리프트로 소요시간은 약 15분이다. 서쪽선과 동쪽선의 중앙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산림관광리프트 이용 및 운몽선정 여행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천문산 코스를 구성할 수 있다.





## 📷 천문동 티엔먼둥 | 天门洞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천연 석회암 동굴로 천문산의 웅장함에 방점을 찍는 곳이자 천문산의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이다. 1999년에 개최된 세계 에어쇼에서 경비행기 4대가 동시에 천문동을 통과하는 진기한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된 것. 바위 절벽 한 가운데에 높이 130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구멍이 시원하게 뚫려 있어 동굴이라기보다는 '하늘로 향하는 문' 즉 '천문' 天门 '처럼 느껴진다.



## 📷 천문산 에스컬레이터

티엔먼푸티 | 天门扶梯

절벽을 관통하는 세계 최초의 에스컬레이터다. 총 길이는 897m, 상승고도는 340m에 이르며, 한 방향 당 총 12개의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어 있다. 시간당 3,600명에 달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끝에서 끝까지 이동하는데 약 30분이 소요된다. 천문동 정상에서부터 먼저 7개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온 뒤, 다시 천문동 광장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나머지 5개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999개의 계단을 걸어서 내려갈 수도 있다. 5개의 에스컬레이터 비용은 별도로 이곳에서 지불해야 한다.



## 📷 상천제 상티엔티 | 上天梯

천문동에서 셔틀버스를 탈 수 있는 천문동 광장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지만 천문산의 가파른 경사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999개의 계단을 걸어 내려가며 전 후방의 경치를 감상하는 것이 좋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천문동은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준다. 계단이 매우 가파르니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관절이 좋지 않다면 에스컬레이터를 타도록 하자.



## 📷 통천대도

통티엔따다오 | 通天大道

통천대도는 99개의 굽이가 있는 구불구불한 길로 보통 천문산 관광을 마치고 시내로 돌아올 때 셔틀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길이다. 혼잡함을 막기 위해 올라갈 때 케이블카를 이용한 여행이라면 내려갈 때는 반드시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천문산을 찾은 여행객들은 한 번은 꼭 통천대도를 이용하게 된다. 하루에도 수십 번 통천대도의 굽커브 구간을 오르내리는 운전사의 실력은 장가계 최고 수준이지만, 바로 아래로 천 길 낭떠러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굽커브를 돌 때면 어쩔 수 없이 가슴을 졸이게 된다. 통천대도를 따라 가는 길의 풍경은 천문산 케이블카에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풍경을 선사하며 마지막까지 눈을 땔 수 없는 절경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 📷 천문호선쇼 티엔먼후셴 | 天門狐仙

장가계가 자랑하는 3대 쇼 중 하나인 천문호선쇼는 뮤지컬 형식의 공연으로 인간 세상의 사랑을 갈망하는 여우와 미물 청년의 사랑이야기를 웅장한 음악과 함께 화려하게 펼쳐진다.



중국 영화계의 거장 장예모 감독이 제작에 참여했으며 2,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노천 무대 뒤로 웅장한 천문산의 바위절벽이 배경으로 펼쳐져 장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아름다운 춤과 음악 그리고 500여 명에 달하는 배우들이 무대를 중형무진하며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무대는 장가계의 밤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물들이기에 충분하다. 한글 자막이 제공되어 공연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낮에는 천문산을 둘러보고 저녁에는 천문호선쇼를 관람하면 완벽한 하루 일정이 완성된다.

**공연시간** 3월초부터 12월초까지, 매일 20:30~22:00  
**가격** 보통석 238위안, 귀빈석1열~2열 880위안, 귀빈석3열~7열 580위안



### Activity

### 액티비티

## 천문산에서 열리는 별의별 액티비티



### 세계 윈슈트 리그

윈슈트Wingsuit는 인간의 날고 싶은 욕구가 만든 발명품 중 하나로 날다람쥐의 비행에서 착안하여 개발되었다. 특수 제작된 윈슈트를 입고 산꼭대기 또는 높은 상공에서 뛰어내리며 스카이다이빙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 있다. 매년 천문산의 정상 부근에서 천문동 광장까지 거침없이 날아 내려가는 세계 윈슈트 리그가 열리고 있다.



### 천제 다운힐 대회

천문동에서 천문동 광장까지 평균 40°를 상화하는 급경사 계단을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다운힐 대회로 해마다 속도전과 점프스킬대회로 나누어 치러지고 있다.



### 세계 드리프트 대회

99개의 급커브로 이루어진 통천대도에서 매년 세계 드리프트 대회가 열리고 있다. 절벽과 절벽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코스를 이탈하면 그대로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스릴 넘치는 코스는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세계 최정상급 레이서들이 담력과 기술을 겨루는 전례 없이 위험한 대회.

사진 장가계시여유국(张家界市旅游局), 외사교무위원회 제공

### info

### 헬기투어

헬기를 타고 천문산의 상공을 돌아볼 수 있는 투어. 10km를 비행하는 코스는 880위안, 18km를 비행하며 천문동, 통천대도, 유리잔도 등을 둘러보는 2코스는 1,580위안이다. 2코스에 동쪽잔도와 천문산사, 윈슈트 점프대 등을 추가한 3코스는 1,880위안이며 30분 동안 원하는 코스를 둘러볼 수 있는 4코스는 15,000위안이다. 시내 케이블카 탑승장에서 투어 신청이 가능하다.







장가계 최고의 핫플레이스,

## 해방로

하이팡루 | 解放路

장가계의 중심인 영정구에서도 중상광장과 대용부성이 자리한 해방로解放路 일대는 항상 소란스러운 자동차 소리와 북적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거리에는 여러 다국적 기업들의 간판이 곳곳에 걸려있고 KFC, 피자헛, 카페 베네 등과 같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과 카페들도 찾아볼 수 있다. 해방로를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중상광장과 대용부성은 장가계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이다. 중상광장은 현대적인 쇼핑몰로 세련된 느낌을 건네고 옛 모습을 간직한 대용부성은 고고한 옛 건축의 전통미를 보여준다. 대용부성 안으로 들어서면 깔끔하면서도 감각적인 상점과 식당, 숙소 등이 이색적인 정취를 피워내고 있다.





**Zhangjiajie Travel**

**중상광장**

중상광장 | 中商广场



장가계 시내에 위치한 깔끔하고 현대적인 쇼핑몰이다. 1층에는 화장품, 시계, 가방 등 패션뷰티크 제품, 2층에는 남성복, 여성복을 포함한 의류 매장들이 주를 이룬다. 3층에는 어린이 체험관이 조성되어 있으며, 4층과 5층에는 상서요리와 토가족 전통요리, 회귀, 스테이크, 파스타 등을 입맛대로 골라먹을 수 있는 전문 음식점들이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의 입맛을 돋운다. 또한 영화관과 KTV 등에서 식사와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운영시간 09:30~22:00

위치 永定区解放路151号

찾아가기 기차역 앞 광장에서 5, 6번 버스 탑승 후 중상광장 하차, 약 30분 소요.



**홀만황제대** 츠판황띠따 | 吃饭皇帝大

'밥 먹을 때는 황제처럼'이라는 이름을 가진 토가족 전통음식점이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훌륭한 공간을 연출해냈다. 전통 색과 문양을 이용한 인테리어는 입구에서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다. 토가족 전통의상을 차려 입은 직원들의 환영인사를 받으며 넓은 홀로 들어서면 바닥과 벽, 등불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그릇과 컵 하나하나에 토가족의 정취가 묻어있다. 홀로 빛은 토기와 천정의 대나무 장식은 토가족들의 유년시절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한쪽에는 옛 토가족의 모습을 담은 작은 갤러리도 마련되어 있다. 이 집의 대표적인 요리는 초후라는 이름의 물고기와 건두부, 고추 등을 넣고 끓여낸 '시화도초어' 柴火草鱼와 큰 명절에만 주로 맛볼 수 있던 여덟 가지 고추, 족발, 닭발, 소등뼈 등을 넣어 만든 '토사대년채' 土司大年菜, 걸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서시두 부환자' 西施豆腐丸子 등이 있다.

위치 永定区解放路中商广场5楼0

찾아가기 중상광장 5층에 위치







## 호객가족 하오커자주 | 豪客嘉族

호객가족은 '귀한 손님을 위한 아름다운 풍류 가락'이라는 멋스러운 이름을 가진 스테이크 전문점이다. 붉은 벽돌로 둘러싸인 내부 기둥과 갈색 나무의 벽은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오래된 포스터, 자동차 번호판 등으로 꾸며진 벽면은 빈티지 카페를 연상시킨다. 소고기 스테이크 외에도 피자, 파스타, 철판 덮밥, 비빔밥 등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다. 단품 메뉴를 주문하면 준비되어 있는 뷔페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이 집의 매력 포인트.

**위치** 永定区解放路中商广场4楼  
**찾아가기** 중상광장 4층에 위치

## 공상원 칸상위엔 | 赣湘苑

중상광장 4층에 자리한 상서요리 전문점이다. 기와를 얹어 고전적인 분위기를 살린 입구와 입구를 지키고 서 있는 로봇 조형물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조합이 인상적인 곳. 대표 요리는 붉은 고추와 고수를 곁들인 오리요리와 매운 양 갈비 등이며 전체 메뉴의 개수가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단품 요리의 가격은 10위안부터 70위안 사이.

**위치** 永定区解放路中商广场4楼  
**찾아가기** 중상광장 4층에 위치



## 카페베네

카페페이니 | 咖啡陪你

차를 즐겨 마시는 중국의 거리에서 카페를 찾기가 어려운데 변화가의 중심에 위치한 중상광장 1층에서 익숙한 이름의 카페를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 유명 브랜드인 카페베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덕분에 시내 구경에 지친 발걸음을 쉬었다가기에 더욱 안락하게 느껴지는 카페베네 특유의 인테리어가 반가운 곳.

**위치** 永定区解放路中商广场1楼  
**찾아가기** 중상광장 1층에 위치



## 길신리아

지신리아 | 吉新利亚

'길하고, 새로우며, 이롭다' 좋은 단어들을 한데 모아 만든 그 이름 속에서 맛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길신리아는 장가계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크 가게 중 하나로 상징색인 초록색 간판과 초록으로 포인트를 준 실내가 신선하고 깨끗한 인상을 느끼게 해준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의 빵과 케이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으로, 크랜베리 녹차케이크가 이곳의 대표 메뉴.

**위치** 永定区解放路中商广场1楼  
**찾아가기** 중상광장 1층에 위치







Zhangjiajie  
Travel

## 대용부성

따용푸청 | 大庸府城



1994년에 장가계시로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 장가계는 오랜 시간 대용대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명나라 때인 1370년에 처음으로 이곳에 행정기관인 대용위大庸衛가 설치되었고 지금의 장가계시 영정구정부에 이르기까지 40여 명의 지도자가 이곳을 거쳐 갔다. 6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대용부성은 장가계 시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고건축물이다. 명나라부터 청나라 때까지 관아가 위치하고 있던 터 위에 지은 건축물로 토가족, 백족, 묘족 등 지역의 주요 소수민족들의 전통건축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전통적인 외관과 거리의 모습과 달리 대용부성 안에는 세련되고 깔끔한 레스토랑과 상점, 바, 객잔 등이 자리하고 있어 젊은이들의 힙 플레이스로 사랑받고 있으며, 배낭여행자들을 위한 저렴한 숙소들도 많아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여행자들이 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위치 永定区解放路152号  
찾아가기 기차역 앞 광장에서 버스, 6, 5, 9, 13번 탑승



☕ 란회소 란후이썬 | 兰会所

대용부성 입구에 위치한 카페 겸 바. 전통 문양의 로고와 달리 세련미가 물씬 느껴지는 입구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내부로 들어가는 벽면에는 주인 부부가 함께 바이크 여행을 하며 찍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고 노출된 천정과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은색 환풍구가 전체적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테이블과 의자는 저마다 다른 모양에 배치도 제각각이어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른 공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주인장이 중국 전역을 여행하며 모은 흥미로운 수집품들과 묘하게 어우러지며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공간을 완성시킨다. 와인과 카페, 전통차, 과일주스 등의 마실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며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손님이 모두 돌아갈 때까지'이다.

위치 永定区解放路大庸府城  
찾아가기 대용부성 입구의 계단을 올라간 후 왼쪽에 위치







### 차심관 차선관 | 茶寻馆

대용부성 서쪽 거리 중간에 위치한 흑차 판매점이다. 흑차는 보이차와 같은 발효차로 독특한 풍미와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며 장가계가 속해있는 호남성의 흑차가 특히 유명하다. 때문에 장가계 거리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흑차 판매점을 찾을 수 있으며 대용부성에서는 차심관이 대표적이다. 낯선 중국어 때문에 어떤 종류의 차가 좋을지 결정하기 어렵다면 시음이 답이다. 호남성에서는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이 전통이자 예의로 시음을 하더라도 차를 꼭 시야할 필요는 없다. 달고 향긋한 향이 마음에 든다면 장가계 여행의 기념품으로 관찰은 선택이 될 것이다.

**위치** 永定区古庸路大庸府城红橙子时尚酒店  
**찾아가기** 대용부성 내 서쪽 거리 중간



### 대용부성 BAR 거리

대용부성은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답다. 옛 정취가 느껴지는 평화로운 거리에 밤이 찾아오면 색색의 조명이 은은하게 번지고 흥겨운 노래와 연주소리가 울려 퍼진다. 대용부성 서쪽에는 많은 바들이 모여 작은 거리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바에 스테이지와 노래 기기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매우 이색적. 노래방과 클럽이 합쳐진 독특한 분위기로 가수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지만 조금씩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손님들이 하나둘 자유롭게 무대 위로 올라가 노래를 부르는 풍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2030 손님이 대부분으로 신나는 리듬에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곳부터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곳까지 다양한 분위기의 바가 기다리고 있다.

**위치** 永定区古庸路大庸府城红橙子时尚酒店  
**찾아가기** 대용부성 내 서쪽 거리 일대





### 팔계인문객잔 빠제런원커잔 | 八戒人文客棧

대응부성 내 1층에 있는 객잔으로 팔계유스호텔과 같은 주인장이 운영하고 있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입지 조건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식당과 상점이 많아서 여행자들에게 언제나 인기가 높다. 룸 컨디션 또한 깔끔해 여성 여행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저녁이면 각국에서 온 여행자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여행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벽면에 그려진 중국풍의 벽화를 보는 것도 쓸쓸한 재미.

**위치**     永定区北正路73  
**찾아가기**   팔계유스호텔에서 도보 3분



### 팔계유스호텔

빠제청년취서 | 八戒青年旅舍

대응부성 건물 4층에 위치한 팔계유스호텔. 유스호텔이므로 항상 활기가 넘치고 북적이지만 소란스럽지는 않다는 것이 장점. 당구장과 티 테이블, 아담한 정원 등 투숙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시설들은 장가계를 찾아온 여행자들이 언제라도 팔계유스호텔을 찾게 만드는 섬세한 요소들. 유스호텔에서 직접 제작한 지도는 장가계에 대한 정보 없이 훌쩍 떠나온 여행자들이 무리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배낭여행자들의 선호도가 높으므로 예약은 필수.

**위치**     永定区解放路大庸府城迎福楼4楼  
**찾아가기**   대응부성 입구의 계단을 올라와서 우측에 위치







## 장가계의 미래, 호텔 구역

영정구의 대용로 일대에는 화천성대주점, 대성산수국제 대주점 등 장가계를 대표하는 5성급 호텔들과 시인민정부 등이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장가계의 새로운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공항과 기차역, 버스정류장까지 모두 차로 10분 내에 도착하는 훌륭한 접근성을 자랑한다. 호텔 구역 중심에 조성된 넓은 광장을 중심으로 웅장한 규모의 호텔들이 담을 쌓듯 둘러싸고 있으며, 광장 뒤로 모습을 드러낸 천문산과 함께 환상적인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낸다. 특히 밤이 되면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호텔들이 형형색색의 화려한 조명을 켜고 장가계 최고의 야경을 연출한다. 호텔마다 제각각 다른 모습의 조명을 밝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장면 장면이 각 호텔을 따라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LED 조명쇼를 펼치고 있다. 여러 호텔을 비롯해 중심 광장과 다리, 운정회관까지 색색으로 물들어가는 장가계의 밤풍경을 두 눈 가득 담아보자.





## 대성산수국제대주점

따청산수이귀지따지우디엔 | 大成山水国际大酒店

대성산수국제대주점은 장가계시 중심부에 위치한 오랫동안 장가계를 대표해온 5성급 호텔 중 하나이다. 접근성이 좋고 내부 컨디션이 우수해 한국 여행객들이 특히 많이 머무른다.



20만 평방미터의 넓은 부지 위에 세워진 호텔은 본관과 신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 2,200여 개의 객실은 장가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10개의 컨퍼런스 룸과 2개의 대규모 다기능 홀, 중식 및 양식 레스토랑, KTV, 스파, 피트니스센터, 비즈니스 클럽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포시즌 워터월드에는 1년 내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건강 관리 구역과 레크리에이션 구역으로 나누어져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객실은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싱글 스위트, 디럭스 더블, 패밀리 룸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위치** 张家界市永定区大庸西路  
**찾아가기** 기차역과 버스정류장 앞 광장에서 버스 13, 10b, 6 탑승  
**홈페이지** www.zjjdc.com

## 화천성대주점 화티엔청따지우디엔 | 华天大酒店

중국의 거대 관광 기업인 화천 그룹과 장가계 시정부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장가계 화천 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어진 최고급 시설의 5성급 호텔이다. 추후 주거 및 비즈니스 단지,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거리 등이 완성되면 화천성대주점 일대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장가계의 신시가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예정이다.

이 호텔은 장가계 공항에서 차로 5분, 기차역과 버스정류장에서는 8분, 천문산 케이블카 탑승장까지 5분이면 이동 가능한 최상의 접근성을 자랑한다. 전체 외벽을 유리로 마감한 세련된 외관이 인상적으로 밤이 되면 펼쳐지는 LED 야경쇼의 메인을 책임진다. 14만 평방미터의 건축 면적을 자랑하는 호텔에는 500개 이상의 객실과 고품질의 토가족 공예품 상점, 중식 및 양식 레스토랑, 회의실, 헬스장, 스파, 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무료 공항 셔틀 서비스 외에도 드라이클리닝, 팩스, 자전거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치** 张家界永定区迎宾路和大庸路交汇处  
**찾아가기** 기차역 앞 광장에서 버스 13, 10, 1b, 6, 5 탑승  
**홈페이지** www.huatian-hotel.com/zjht







## 화천금가 화티엔젠제 | 華天金街

가운데 길을 하나의 성처럼 건물들이 빙 둘러싸고 있는 독특한 거리로 대성산수 국제대주점과 화천성대주점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식당과 기념품가게, 마사지 숍 등이 한데 모여 있어 주변 호텔 구역에 머무는 여행객들이 주로 이곳을 찾는다. 건물 1층에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카페 겸 바를 비롯해 토산품 및 기념품 가게, 찻집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2층에는 토가족 전통 요리인 삼하과와 휘귀 등의 현지 음식과 현지에서는 보기 드문 무슬림 요리 등을 선보이는 다양한 종류의 레스토랑들이 자리하고 있다. 3층과 4층에는 유명한 마사지 숍이 있어 하루의 여행을 마감하고 편안하게 쉼인 피로를 풀어줘도 좋다.

**위치** 永定区官黎坪街道华天城金街118号  
**찾아가기** 화천성대주점에서 도보 3분



## 운정회관 원명후이관 | 云顶会馆

호텔 구역에 작은 섬처럼 떨어진 돔 형식의 독특한 외관을 가진 운정회관은 장가계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클럽이다. 어둠이 내리면 건물 외벽을 촘촘히 꾸민 12만여 개의 LED에 조명이 들어와 호텔 구역 야경의 한 축을 담당한다. 좌석 수는 3,800개에 달하며, 매일 360° 파노라마 무대 위에서 상서 지역 소수민족들의 전통 춤과 노래 그리고 클럽 디제잉과 아바타 공연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진다. 밤 9시 30분에 직경 45m에 달하는 연꽃 모양의 돔 지붕이 오픈되는 장면은 운정회관의 하이라이트. 하지만 가격에 비해 전체적으로 공연의 내용이 아쉬운 편.

**입장료** 오전 공연, 오후 공연 238위안, 저녁 공연 278위안  
**공연시간** 오전 공연 12:00~13:00  
 오후 공연 18:00~19:00  
 저녁 공연 20:30~01:00

**위치** 永定区机场路与大庸路交汇处  
**찾아가기** 대성산수대주점에서 도보 3분  
**홈페이지** [www.gentingbar.com](http://www.gentingbar.com)







## 기타 지역




## 블루베이호텔

란완보꺼지우디엔 | 蓝湾博格酒店

2015년에 오픈한 최신식 호텔로 장가계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호텔로 주목받고 있다. 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시내 중심가까지는 차로 5~10분이면 이동 가능하기에 불편함은 없다. 주변은 한창 개발 진행 중인 지역으로, 오히려 조용하게 묵을 수 있는 것이 장점. 총 건축 면적은 7만 평방미터에 이르며 최신식 5성급 호텔답게 다양한 편의 시설과 깔끔한 객실을 자랑한다. 국제 연회장, 다목적 회의장, 헬스클럽 및 관광센터 등 장가계에서 손꼽히는 시설을 자랑하며 중식, 양식, 한식까지 각기 다른 콘셉트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투숙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다. 호텔 로비부터 객실까지 전체적으로 감각적이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꾸며졌으며,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테리어를 가미한 점도 인상적이다. 총 888개의 객실이 준비되어 있으며 객실 내 TV에서 NHK, KBS 및 기타 국제 채널의 시청이 가능하며 무료 와이파이의 속도도 훌륭하다.

**위치** 永定区天崇路荷花路十字路口  
**찾아가기** 기차역 앞 광장에서 버스 1b, 5, 6번 탑승  
**홈페이지** [www.lanwanboge.com/en](http://www.lanwanboge.com/en)




## 베스트웨스턴 장가계

짱자제웨이쓰터따지우디엔 | 张家界韦斯特大酒店

세계적인 호텔 체인 베스트웨스턴을 장가계에 서도 만나볼 수 있다. 시내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으며 무엇보다 대용량공원 바로 뒤편에 위치해 언제든 가볍게 공원 산책도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지니고 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로비는 거대한 갤러리를 연상시키며 통유리창으로 마감되어 시원한 느낌을 전해준다. 룸 컨디션 또한 깔끔하고 산뜻. 새로운 호텔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장가계에서 오랜 시간 여전히 최고의 호텔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곳으로 직원들의 서비스가 좋아 재방문 의사가 어느 곳보다 높은 호텔이다.

**위치** 永定区子午西路大庸桥公园北面  
**찾아가기** 기차역 앞 광장에서 버스 5, 6, 1b번 탑승




## 산수중천국제대주점

산슈이쥬팅엔귀지따지우디엔 | 山水中天国际大酒店

4성급 호텔로 화룡공원이 뒤편에 자리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로비로 들어서면 고급 대리석으로 처리된 바닥이 인상적이다. 내·외국인들 모두에게 평가가 좋은 까닭은 질 좋은 서비스는 물론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시설과 관장은 전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스탠다드룸 기준 성수기에는 1박에 250위안, 비성수기에는 200위안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가성비를 고려한다면 산수중천국제대주점이 정답. 교통도 좋은 편이고 호텔 내에 매점도 갖추고 있어 편리성을 더한다.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맛집도 많아 여러모로 합리적이다.

**위치** 永定区崇文路63号  
**찾아가기** 기차역에서 버스 13, 6, 5번 탑승





## Moon & Lotus

파시엔화관 | 发现花馆

Moon & Lotus는 장가계에서 가장 예쁘고 특색 있는 카페이자 와인스토어 그리고 플라워 숍까지 겸한다. 화이트 톤 바탕에 목재로 된 가구와 난간의 조합은 세련되면서도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물씬 풍겨 내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와인병과 옛날 집에서 구해온 오래된 나무와 가구들은 빈티지한 감성을 책임진다. 1층과 2층 사이가 오픈되어 공간감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한쪽 벽면 전체를 이룬 유리창을 통해 가게 내부를 꾸미는 색색의 꽃들이 햇빛을 받아 특별한 조영 없이도 가게 안을 화사하게 빛낸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면 한결 차분하고 아늑한 공간이 나타나며 2층에는 플라워강의, 파티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살롱도 마련되어 있다. 요리는 웨스턴 풍의 메뉴가 주를 이루며 커피의 품미 또한 수준급.

**위치** 永定区大庸路山水印象广场发现花馆  
**찾아가기** 호텔 구역에서 대용교 방면 차로 5분 거리



## 가고파 천하

티엔시아샤오카오 | 天下烧烤

조선족 주인장이 장가계로 건너와 오픈한 양꼬치 전문점. 주인장은 한국에서도 동명의 식당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인의 입맛과 기호를 정확히 맞춰준다. 양고기는 특별히 잔내가 없고 담백해 이 집의 대표 메뉴로 손색이 없다. 이외에도 조개관자, 문어뿔판복음 등 중국식과 한국식, 조선족의 음식이 골고루 섞여있는 메뉴들이 많아 선택의 폭이 넓다. 무뎅뎅하지만 정감 있는 주인장의 인심이 돋보이는 곳.

**위치** 永定区助军路蓝色港湾门口天下烧烤  
**찾아가기** 호텔 구역에서 대용교 방면 차로 10분 거리

## 홍원생태식당

홍원생태타이찬팅 | 鸿源生态餐厅

시내는 아니지만 호텔 구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장가계에서 한국음식이 생각날 때 들르면 좋다. 주로 한국의 단체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식당으로 3인 이상부터 식사가 가능하다. 매콤하면서도 담백한 오리불고기와 얼큰하고 칼칼한 김치찌개는 주인장의 음식솜씨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이 집의 대표메뉴. 이외에도 버섯전골, 삼겹살 등 다양한 종류의 한국음식과 현지음식, 동북 지방의 음식도 준비되어 있다.

**위치** 永定区S306  
**찾아가기** 호텔 구역에서 차로 5분 거리



## 농산물센터

산 좋고 물 좋은 장가계에서 자란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곳. 품질 좋고 값도 합리적이어서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귀국 전에 기념품 구입을 위해 들르는 곳이다.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말린 백두산에서 재배한 목이버섯으로 작은 곱에 한 번 먹음 만큼의 양식 포장되어 있어 선물용으로 의외로 훌륭한 선택이 된다. 이외에도 호남성에서 유명한 흑차와 한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보이차, 레몬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와 잼, 참깨, 블루베리 등을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위치** 永定区S306  
**찾아가기** 호텔 구역에서 차로 5분 거리







입구로 들어서면 나타나는 중앙무대는 토가족 전통공연을 볼 수 있는 장소로 하얀 용이 건물을 돌아 내려오는 48m 높이의 구천루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의 목조건물이다. 이외에도 민속의상 체험, 박물관 관람, 토가족 전통음식 시식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한국어가 가능한 가이드가 상주하고 있으니 토가족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듣고 싶다면 안내를 요청하면 된다.

운영시간 08:00~18:00

입장료 120원

위치永定区大庸路旺角佳园对面

찾아가기 호텔 구역에서 대용교공원 방면 차로 5분 거리

## 토가풍정원

투자주평칭위엔 | 土家风情园

장가계는 다양한 소수민족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모계 중심 사회의 소수민족인 토가족이 장가계 총 인구의 약 70%를 차지한다. 장가계시는 토가족의 독특한 문화와 풍습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토가족의 문화와 풍습을 살펴보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토가풍정원이 대표적인 곳이다. 토가풍정원은 1999년경 토가족들이 살던 산간 마을을 복원하여 만든 민속원으로 호텔 구역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시작할 때 또는 마무리할 때 들르곤 한다.







### 기독교복음당 지두자오편탕 | 基督福音堂

중국에서는 서양식 교회를 흔하게 볼 수 없지만 장가계에서는 가능하다. 장가계 시내 중심에 위치한 기독교복음당은 순백색의 외관에 빨간색의 첨탑과 지붕을 이고 있는 모습으로 초록의 대자연으로 가득한 장가계에서는 다소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교회 내부는 가운데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기둥과 의자들이 대칭을 이루며 가지런히 놓여있어 엄숙하면서도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스테인드글라스나 별다른 장식 없이 오로지 종교 활동에만 집중한 모습. 십자가 좌우에 쓰여 있는 보천동경, 교주강생이라는 글귀가 눈에 띈다. 하나님의 탄생을 기뻐한다는 뜻으로 언어와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

**위치** 永定区新码头巷2号  
**찾아가기** 호텔 구역에서 회용공원 방면으로 차로 7분



### 열사릉원 리에스링위엔 | 烈士陵园

장가계는 영광스런 혁명역사가 잠들어 있는 도시로 세계2차 대전 때 성 혁명위원회가 위치했던 도시이기도 하다. 임주시, 위운 하룽, 관향응, 하의, 주장청 등 유명 인사들이 홍군 2군단과 6군단을 지휘했으며 166명의 명장들이 혁명의 찬란한 흔적을 남겼다. 장기간의 혁명투쟁 중에 장가계는 수많은 아픈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장가계 출신으로 희생된 혁명열사는 3,000여 명이 달하고 그중 단장 이상 간부들만 해도 100여 명이 넘는다. 열사릉원은 이러한 혁명 열사들의 혼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으로 1985년 10월 완성된 혁명열사 기념탑 뒷면에는 모택동의 말을 인용하여 “인민을 위해 희생하였기에 그 또한 영광스럽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기념탑 북쪽의 정자에는 기념비가 있으며 그곳에 역사 1,660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위치** 永定区解放路与迎宾路交叉口东北50米  
**찾아가기** 대용부성에서 동쪽으로 도보 12분



### 보광선사 푸광찬쓰 | 普光禪寺

보광선사는 장가계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사찰로 백양고찰白羊古剎이라고도 불리며, 보광선사 맞은편 광장 한가운데에 선 양의 동상이 보광선사의 전설을 전하고 있다. 옛날에 양 한 마리가 지금의 보광선사 터에서 갑자기 하얗게 변하더니 땅으로 사라졌다. 이에 사람들이 양이 사라진 땅을 파서 확인해보니 어마어마한 양의 백금이 나왔다고, 그때 땅에서 나온 백금으로 백양사를 지었고, 추후 백양사의 이름이 보광선사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명나라 시기인 1414년에 세워졌으며 당시 불교, 유교, 도교의 건축예술을 합친 종합적인 건축물이었으나 현재는 일부 건물만 남아 있다.

**위치** 永定区解放路70号  
**찾아가기** 대용부성에서 동쪽으로 도보 5분







## 📷 군성화원

원성화원엔 | 军声畫院

4층 크기의 고풍스러운 건물에 자리한 군성화원. 이군성이라는 화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으로 작품은 모두 물감이 아니라 모래를 기본으로 돌가루, 자갈 같은 재료들로 만들어져 독특한 양식을 보여준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그것들이 어우러진 장면을 이군성 특유의 화풍으로 만들고 그려냈지만 그보다 지극히 사실적이고 섬세하며 웅장한 풍경이 더욱 놀랍다. 그림은 천연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식되고 손상될 일 없이 거의 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다고 한다. 2층 전시장부터는 사진촬영을 금하고 있으니 눈과 마음으로만 담을 것.

**위치** 永定区子午路2号  
**찾아가기** 대용부성에서 도보 20분



info

### 이군성 리원성 | 李軍聲

1963년 장가계에서 출생한 화가로 어려서부터 장가계의 모습을 보고 커왔기에 누구보다도 장가계의 풍경에 익숙하다. 모래와 자갈 등 독특한 재료로 작품을 만들어 오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수억 원을 호가할 정도, 사석화의 창시자로 인정받고 있다.







 **장가계시박물관** 팡자제시보우관 | 张家界市博物馆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잔디광장에 현대적인 외관을 자랑하는 시박물관은 장가계의 풍경을 제외한 역사와 이야기 등 거의 모든 것을 엄선하여 정리, 전시하고 있어 장가계를 이해하고 미리 알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 3층 규모의 박물관은 각 층별로 각각 지질학 전시장과 역사관, 도시계획 전시장으로 구분되어 전시되고 있으며 사실적인 미니어처와 모형들, 깔끔한 동선으로 이어지는 관람 순서가 인상적이다. 특히 1층에 마련되어 있는 4D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장가계에 관한 짧은 4D 영화는 유익하고 재미있어 아이를 동반한 관람객들의 필수 코스. 장가계 여행의 시작점으로 잡으면 좋다.

**위치**永定区大庸路附近  
**찾아가기**호텔 구역에서 대용교 방면 차로 7분 거리







## 대용교공원 다용차이오공원 | 大庸橋公園

장가계시박물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공원으로 장가계시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리수이(澧水)강을 끼고 있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이기도 하다. 아침저녁으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즐기거나 단체로 모여 무용을 즐기는 등 장가계 사람들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장소 중 한 곳. 독특한 모습의 조형물과 야자수가 늘어 있는 공원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간단한 워킹시설과 놀이배 등도 이용할 수 있어 작은 놀이동산 같은 느낌마저 난다. 장가계 시민들이 마음 놓고 쉬고 싶을 때 찾아오는 휴식 공간이자 여행자들에게도 쉼을 내어주는 곳. 장가계에 꼭 필요한 공원이다.

**위치** 永定区子午路东  
**찾아가기** 장가계시박물관 맞은편, 도보 3분



## information

### 여행정보

#### 장가계 기차역 팡자제화차판 | 张家界火车站

여행객들은 보통 상해나 북경에서 중국 국내선으로 환승하거나 호남성의 성도인 장사에서 버스를 타고 장가계로 들어오지만 중국여행의 정취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기차를 타는 방법을 추천할 만하다. 장사에서 장가계까지는 기차로 5시간 소요. 앞으로 들어서게 될 고속열차와 시설이 완공되면 장가계를 찾는 기차 여행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치** 永定区大庸路



#### 장가계 버스터미널 팡자제중신차판 | 张家界中心汽车站

비행기를 타고 먼저 장사에 도착한 후 버스를 타고 장가계로 들어오는 루트는 한국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 중 하나다. 개별여행자라면 영정구에서 다시 무릉원구로 이동하기 위해 꼭 들러야 하는 곳. 장가계 버스터미널에서 무릉원구까지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무릉원행과 국가삼림공원행 버스 중 원하는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무릉원행은 약 50분 정도 소요되며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10분 간격으로, 국가삼림공원행은 약 40분 정도 소요되며 오전 6시 10분부터 오후 6시까지 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요금은 양방향 모두 약 20위안이다.

**위치** 永定区官黎路1号附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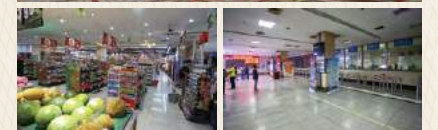


#### 여행자센터

스런빈 팡푸우커중심 | 市人民政府游客中心

장가계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사이에는 장가계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행자센터가 위치해 있다. 장가계 여행 관련 리플렛 및 지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짐 보관도 가능하다. 필요하면 가이드도 신청할 수도 있고 한쪽에는 기념품가게가 자리하고 있어 장가계의 특산물 및 공예품을 구입할 수 있다.

**위치** 迎宾路市政府游客中心东南侧50米





# 무릉원

우릉위엔 | 武陵源

중국 호남성 무릉이라는 지역에 민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었다. 어느 날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강을 따라 계곡 깊숙이 들어갔다가 산 속에 숨겨진 낙원, 무릉도원을 발견한다. 장가계시 무릉원은 바로 도원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무릉도원의 실제 무대이다. 장가계시는 무릉원구와 영정구 그리고 상식현과 자이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천자산 풍경구, 국가삼림공원, 양가계 풍경구, 식계옥 풍경구, 대협곡 풍경구 등 핵심 풍경구들이 모여 있는 무릉원 지역을 장가계라고 부른다. 먼 옛날 바다가 솟아올라 침식과 풍화 작용 등을 거치며 지금의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산세가 만들어진 무릉원 지역은 가파른 협곡과 계곡, 기이한 봉우리들의 향연이 끝없이 펼쳐지며 천하절경을 이뤘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누군가 ‘人生不到張家界, 百歲豈能稱老翁 – 사람이 태어나서 장가계에 가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했다. 이제 10% 정도만 개발되었다는 무릉원, 100세가 되어도 다 볼 수 있을까.







## Editor's CHOICE



무릉원은 크게 천자산 풍경구, 삭계옥 풍경구, 양가계 풍경구 그리고 황석채, 원가계 등을 포함하는 국가삼림공원으로 나누어진다. 각 풍경구에서 꼭 방문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소개한다.

### 양가계 풍경구

#### 천연장성

티엔란창청 | 天然長城

날선 바위들이 커켜이 솟아올라 2중, 3중으로 성벽을 이루는 천연장성은 양가계 풍경구의 백미이다.



## 1 원가계 풍경구

#### 천하제일교

티엔샤띠이치야오 | 天下第一橋

높이 약 360m, 길이 약 30m, 두께 약 5m에 이르는 웅장한 다리를 눈앞에 마주하면 왜 '하늘 아래 첫 번째 다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 건곤주

치옌쿤쭈 | 乾坤柱

영화 <아바타>에 나온 할렐루야산의 모티브가 된 돌기둥으로 장가계에서 가장 유명한 풍경 중 하나로 손꼽힌다.



### 황석채

#### 오지봉

우즈펑 | 五指峰

길쭉하게 솟아오른 봉우리들 중 하나의 봉우리가 다섯 갈래로 갈라져 있어 마치 다섯 개의 손가락을 편 것처럼 보인다.

#### 전화원

치옌화위옌 | 前花園

꽃망울이 피어나는 듯한 형상의 봉우리들이 모여 있다. 다수의 현지 가이드들이 황석채 최고의 전망으로 꼽는다고.

## 3



## 4

### 천자산 풍경구

#### 점장대

다옌뎡타이 | 点将台

천자산의 험준한 봉우리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풍경이 마치 명령을 기다리며 도열하고 있는 병사들처럼 보인다.



## 5

### 삭계옥 풍경구

#### 십리화랑

스리화랑 | 十里画廊

10리에 이르는 협곡 사이의 계곡을 따라 각 양각색의 기이한 봉우리와 암석들이 줄을 지어 펼쳐진다.

#### 황룡동굴

황룡동 | 黃龍洞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증류동굴이자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용암 동굴. 내부에 우후죽순 솟아나 있는 석주와 석봉 하나하나에 수만 년의 세월이 담겨 있다.







장가계의 진수,  
**국가삼림공원**

귀자산림공원 | 國家森林公園

국가삼림공원은 1982년 중국에서 최초로 지정된 국가삼림공원이자 1992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으로 그 어느 곳보다 다채로운 자연 풍광이 밀집되어 있다. 국가삼림공원 입구는 장가계 여행을 위한 교통의 요지로, 타 풍경구와 셔틀버스로 쉽게 연결되어 알찬 하루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아바타의 배경이 된 원가계, 장가계의 축소판 황석채, 호젓한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금편계곡 그리고 세계 최장의 백룡엘레베이터까지 장가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명소들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장가계 여행의 필수코스이다.





## About Wulingyuan

### 개요 및 일반정보



#### 장가계 시내에서 무릉원으로 이동하기

천문산을 제외한 장가계의 대표적인 여행지들이 대부분 장가계시 무릉원구에 모여 있다. 장가계 공항 또는 기차역에서 무릉원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정구 시내 버스터미널로 가야한다.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무릉원 입구 또는 국가삼림공원 입구 행 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며, 요금은 10~20원이고 약 40~50분 정도 소요된다.

#### 찾아가기

**무릉원 입구** 영정구 시내 버스터미널에서 무릉원 행 버스 탑승.  
**삼림공원 입구** 영정구 시내 버스터미널에서 삼림공원 행 버스 탑승.



#### 무릉원-삼림공원 입구

무릉원에는 총 다섯 개의 입구가 있으며 무릉원의 각 풍경구는 서로 이어져 있다. 본인의 무릉원 여행 동선에 맞춰 다섯 개의 입구 중 가까운 곳을 선택하여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양가계 입구와 천자산 입구는 무릉원 시내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무릉원 쪽 오가목(我家) 입구 또는 삼림공원 쪽 라고탕(锣鼓) 입구를 이용하여 무릉원 여행을 시작한다. 입장료는 보험비 3위안을 포함한 248위안으로 4일간 유효하며 각 스폿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이용요금은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다. 케이블카와 엘리베이터는 별도로 티켓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 Editor's COURSE

### 추천코스

천자산과 양가계, 원가계는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어 하루 일정으로 함께 다녀오는 것을 추천한다. 무릉원 입구에서 시작하여 천자산 그리고 양가계와 원가계를 먼저 둘러본 뒤, 체력과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금편계곡과 황석채까지 함께 다녀오는 코스를 소개한다. 여행 일정이 넉넉한 여행이라면 일정을 이들로 분리하여 여유롭게 천하절경을 감상하자.







## Zhangjiajie Travel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

## 원가계

위엔자제 | 袁家界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비현실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원가계가 영화 <아바타>에 등장하는 판도라 행성의 모티브가 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장가계가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여행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영화 <아바타>의 블록버스터급 흥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가계 풍경구의 아바타 조형물 앞에는 늘 기념 사진을 남기려는 수많은 여행자들이 줄을 선다. 헤이킬 수 없는 긴 세월, 지각변동과 비와 바람이 만들어낸 웅장하고 신비로운 봉우리들은 자연만이 창조할 수 있는 신비가 아닐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원가계의 실제 풍경 속을 걷는 길은 잠시 외계의 행성에 착륙하여 그 기이함에 넋을 잃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시간이다.





## 천하제일교

티엔샤띠이치야오 | 天下第一橋

천하제일교는 원가계의 백미로 손꼽힌다. 수억 년 전에는 본래 하나의 돌기둥으로 형성되었으나 길고 긴 세월 동안 바람과 비에 깎이고 침식의 과정을 거치며 아랫부분의 암반이 떨어져 나갔다. 그 결과 가운데는 비어 있고 윗부분만 연결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한때는 너무나 정교한 모습 때문에 수나라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석교로 알려지기도 했다고.

약 360m 높이에 자리하고 있지만 길이가 30m에 이르고 두께는 5m에 달한다. 다리 위로 무성하게 자라난 풀과 나무들 때문에 막상 그 위를 걸을 때는 별다른 감흥을 느낄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그 놀라운 모습에 왜 '하늘 아래 첫 번째 다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원가계의 망교대가 천하제일교의 위용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장소. 천하제일교와 근처의 난간에는 연인들의 사랑과 염원을 담은 자물쇠가 가득히 달려 있다. 난간에 자물쇠를 채우고 천하제일교 아래의 절벽으로 열쇠를 던지면 그 열쇠를 찾을 때까지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건곤주** 치옌쿤주 | 乾坤柱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판도라 행성 할렐루야 산의 모티브가 된 곳으로 영화 속에서는 건곤주의 윗부분만 공중에 두둥실 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하늘과 땅을 떠받치는 기둥 혹은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뜻의 건곤주는 영화의 유명세와 함께 지금은 할렐루야산(哈利路亚山)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랫부분보다 윗부분이 더 굵은데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원근감까지 더해져 아슬아슬하면서도 위태로운 기운이 잔뜩 느껴진다.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주는 150m에 달하는 돌기둥의 꼭대기에는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심어져 있고 그 아래로 깎아지른 듯한 바위절벽의 모습이 아찔하기만 하다. 건곤주를 감상하는 전망대에는 <아바타>에서 나비족이 타고 다니던 새 조형물이 있어 새를 타고 하늘을 나는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이들이 많다.



## **미혼대** 미혼타이 | 迷魂台

미혼대의 이름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너무 아름다워서 정신을 잃게 되는 곳'이란 뜻이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곡선을 이루며 부드러운 인상을 드러내기도 하고, 바위산들이 어깨를 맞대고 시야를 굳게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걸음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미혼대가 주는 황홀함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제각각 솟아오른 황색 바위 봉우리들, 그 봉우리의 바위틈마다 웅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푸른 소나무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이름난 한 폭의 동양화를 펼쳐 보는 듯하다. 같은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기이함이 오래도록 시선을 붙잡아 놓는 곳이니 치분한 마음으로 봉우리 하나 하나 감상해보자.







## **백장절벽** 바이펑취에비 | 百丈絕壁

백장절벽은 천자산에서 양가계를 거쳐 원가계로 접어들 때 처음 만나게 되는 거대한 암벽으로 길이가 백 장(丈, 약 300m)에 이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칼로 자른 듯 날카로운 수직 절벽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상부의 높이는 일정하지만 아래쪽 협곡은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원가계의 섬세한 풍경 속에서 백장절벽은 유독 눈에 띄는 중후하고 장대한 장관을 연출하며 이곳을 찾은 여행객들에게 그만큼 강인한 인상을 남긴다.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가 여러 개 겹쳐진 양가계의 천연장성과는 또 다른 묵직한 위엄을 느껴보자.



## **장수담** 창슈우탄 | 长寿潭

천하제일교를 내려오면 장수담이라는 이름의 작은 연못이 등장한다. 연못 안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인 거북이 형상을 한 석상 5개가 얼굴과 등을 내민 채 물속에 잠겨 있고, 연못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살아있는 거북이들이 한가롭게 노니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다. 거북이 등에 글씨를 써서 방생하면 장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실제로 연못가의 귀왕당(龜王堂)이라는 이름의 소박한 건물에서 거북이를 판매하고 있다.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중국 여행객들에게는 제법 인기 많은 장소이다.





## 삼관대 싼관타이 | 三观景台

삼관대는 팔진도와 무후봉 그리고 백장절벽까지 3곳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이다. 천하제일교를 뒤편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에 삼곡지의 제갈량이 오나라의 대장 육손을 거의 죽음까지 몰아넣고 북벌 당시에는 사마의를 무찌른 병법의 이름을 딴 팔진도(八陣圖)라는 전망대가 있다. 수없이 솟아오른 기묘묘한 돌기둥들이 마치 전쟁터의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곳 가까운 곳에 있는 무후봉(无后峰)은 팔진도의 모습을 더욱 잘 감상할 수 있는 곳이며, 그 옆에 백장절벽이 위풍당당하게 자리하고 있다.

## 백룡엘리베이터 바이룽티엔티 | 白龙天梯

바이룽티엔티 | 白龙天梯

하늘이 창조한 장가계에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놓은 신비 중 하나. 독일기술진이 투입되어 1999년 착공한 백룡엘리베이터는 2002년 4월 준공되었으며, 국가삼림공원 입구, 금편계곡, 수요사문으로부터 원가계, 천자산을 연결하고 있다. 규암기둥을 뚫어 만든 세계에서 가장 긴 엘리베이터로 초당 3m의 속도로 335m 높이의 절벽을 내려가는데 2분이 채 걸리지 않으며 한 번에 25명 안팎의 여행객들이 탑승할 수 있다. 3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빠르게 지나가는 바깥 풍경을 잠시 감상할 수 있지만, 약 절반은 절벽 속을 통과해 실제 그 시간은 무척 짧다. 현재 총 3대의 엘리베이터가 운행되고 있다.

편도 72원







## Zhangjiajie Travel

숨겨진 절경,

## 양가계 풍경구

양가계평핑취 | 楊家界風景區



양가계 풍경구는 천자산과 원가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석영사암 봉우리로 형성된 협곡지형이다. 가장 최근에 발견된 풍경구로 여행객들 사이에서 장가계의 '떠오르는 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천자산과 원가계 여행 일정에 함께 포함하여 다녀오는 것이 좋다. 북송의 양가장(楊家將)이 항왕(項羽)을 지지하고 있던 이 지역을 토벌할 때, 현재의 양가계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양가장의 후손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은 뒤 천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번성하여 양가계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전한다. 양가계는 산세가 매우 험준하여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았던 곳으로 무릉원 내 여러 풍경구 중 가장 늦게 개발된 곳인 만큼 원시림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 양가계 케이블카 양자제썬다오 | 楊家界索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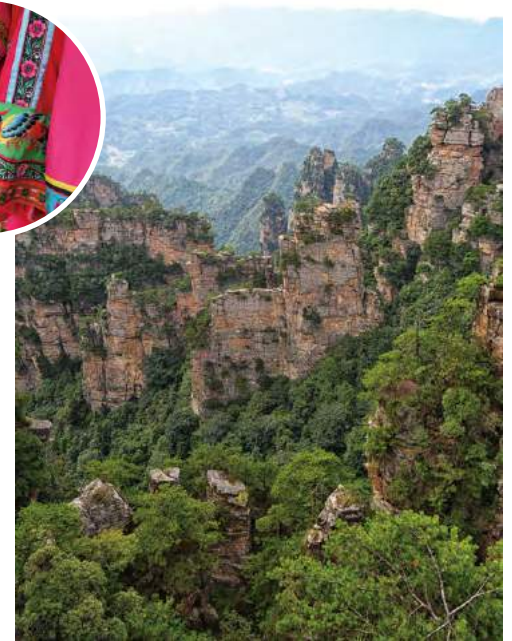
2014년 4월에 개통된 양가계 케이블카는 프랑스의 한 케이블카 회사가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해 설치했다. 총 길이 1,876미터, 높이 517미터이며 시간 당 최대 2,300명까지 운송 가능하다. 편도 소요시간은 약 6분. 좁은 골짜기를 따라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내리는 양묘으로 순수하고 거친 매력을 발산하는 양가계의 산수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편도 72원

## 천연장성

티엔란창청 | 天然長城

날선 바위들이 켜켜이 솟아올라 2중, 3중으로 성벽을 이루는 천연장성은 양가계 풍경구를 대표하는 비경이다. '자연이 만든 큰 성'이라는 뜻을 지닌 천연장성은 높고 낮은 봉우리들이 이루는 웅장하고 조화로운 기세로, 그 어떤 적의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천하의 요새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천연장성 너머로 보이는 탁 트인 전경은 굳건하게 닫힌 바위 장벽과 대비되며 멋진 조화를 이룬다.







**Zhangjiajie  
Travel**

신선이 머무르는 곳,

## 황석채

황스파이 | 黃石寨

중국을 통일한 유방이 장안에서 황제가 된 후 토사구팽(屠狗烹)으로 유명한 개국공신 한신을 죽일 때, 책사였던 장량은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며 화를 피했다. 이후 장량은 전국을 떠돌며 다니다가 장가계의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어 이곳에 자리를 잡았고, 장량은 원주민들에게 문자를 알려주게 된다. 그런 장량의 인품에 감복한 현지인들이 그의 성을 이어받으며 이후 '장 씨가 많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의 장가계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장가계에 은거하며 도를 닦던 어느 날 산 속에서 조난을 당하던 장량은 스승인 황석공에 의해 구출된다. 이후 황석공이 그 자리에서 터를 잡고 도를 닦아 신선이 되었으며, 이곳에 황석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황석채에 오르지 않았다면 장가계를 다녀갔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황석채는 장가계 국가삼림공원 구역에서 가장인북에 높은 봉우리로 정상부까지 약 2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계단을 오를 필요 없이 케이블카를 타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다른 풍경구와 떨어져 있는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무릉원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 📷 황석채 케이블카 황스자이쑤다오 | 黄石寨索道

국가삼림공원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황석채 케이블카가 만들어진 이전에는 해발 1,300m의 정상까지 정으로 쏘아 만든 3,800여개에 달하는 계단을 2시간이 넘도록 올라야 하는 고행을 감수해야만 했다. 케이블카 탑승 장소까지 약 15분 정도 계단을 올라야 하지만 주변 풍광을 감상하며 걸으면 금세 도착한다. 대만 화교가 투자하고 오스트리아 업체에서 1997년에 건설한 케이블카는 약 1km의 거리를 이동하며 일부 케이블카는 바닥이 유리로 되어있어 스릴을 더한다. 황석채의 이질함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정상에는 완만한 산책로가 펼쳐져 있어 편안하게 황석채의 다양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왕복 118원 편도 65원



### 모족 칩가게

케이블카 승차장에 토가족과 함께 장가게를 대표하는 소수민족인 모족의 기념품과 음료 등을 판매하는 상점이 있다. 밀크티, 커피, 생강차, 주스 등의 다양한 음료뿐만 아니라 현지 특산품인 장가계 칩뿌리로 만든 과자와 칩가루 등을 판매한다.



### 📷 육기각 리우치거 | 六奇閣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부로 올라가면 황석채 순환 등산로의 시작점이자 마지막 지점에 지리 잡은 멋스러운 누각을 만나게 된다. 1991년 10월에 준공된 3층짜리 누각에는 산, 물, 돌, 구름, 숲, 동물 등 여섯 가지가 기이하다는 뜻의 육기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육기각의 여섯 가지 기이함이란 바로 황석채의 신비로운 자연을 설명하는 말. 육기각에 올라서면 황석채의 풍경과 함께 멀리 동쪽으로는 수요사문, 금편계곡, 천자산이, 남쪽으로는 천문산 그리고 북쪽으로는 원가계까지 펼쳐져 여섯 개의 면과 층마다 바라보는 풍경이 각기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 적성대

피아싱타이 | 摘星台

'별을 따는 곳'이라는 시적인 이름으로 커다란 호기심을 일으키는 전망대. 적성대는 육기각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같은 풍경이라도 육기각에서 바라보는 것과 적성대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시야가 시원하게 뿜려있어 하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앞쪽의 봉우리들이 하늘을 향해 곧게 솟아 있어 이름 그대로 하늘의 별을 딸 수 있을 것만 같다. 때문에 육기각보다 적성대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더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많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40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천문산의 천문동까지 볼 수 있다고 한다.



## 쌍문영빈

슈왕안잉빈 | 双门迎宾

두 개의 봉우리가 문을 이루어 황석채로 찾아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형상이다. 쌍문영빈 뒤로 산과 산, 봉우리와 봉우리가 서로 어깨를 마주하며 포개진 풍경이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곳은 강택만(江泽民) 전 중국 주석이 황석채에 올라 유일하게 사진촬영을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주변에는 당시 2인자였던 주용기(朱镕基) 총리가 쓴 '张家界顶有神仙 - 장가계에는 신선이 살고 있다'라는 글씨를 새긴 비석이 있다. 다른 곳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명사의 흔적들이 쌍문영빈의 매력을 더하고 있다.







오지봉 우즈펑 | 五指峰

200m 높이로 길쭉하게 솟아오른 봉우리들 중 하나가 다섯 갈래로 갈라져 있어 마치 다섯 개의 손가락을 편 것 같이 보이는 오지봉. 봉우리 위에서 자라고 있는 푸른 소나무들은 손톱의 형상을 빚어내는 듯한 신비한 분위기를 더한다. 현지의 민간 설화에 의하면 황석채의 오지봉은 손오공이 갖가지 방법을 써도 벗어날 수 없었던 여래불如来佛의 손바닥이라고 전해진다. 해질 무렵 따뜻한 석양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특히 아름다운 곳이다.

## 전화원 차원화원 | 前花园

황석채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전화원은 마치 꽃망울이 피어나는 것 같은 형상을 한 봉우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많은 장가계 가이드들이 황석채 최고의 전망으로 꼽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황석채와 원가계는 신비롭고 오묘한 자연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황석채에서 원가계 쪽을 바라보는 풍경을 전화원前花園, 원가계에서 황석채 방향을 바라보는 풍경을 후화원后花園이라고 한다. 전망대 앞에 자라난 소나무는 시야를 가리기보다는 주변과 어우러지며 풍경에 질감을 더해주는 느낌이다.







## Zhangjiajie Travel

한 폭의 수채화 속을 걷다,

## 금편계곡

찐빠엔시 | 金鞭溪



금편계곡은 국가삼림공원 입구에서부터 약 7km 정도 이어져 있으며 한 번 걸으면 10년이 젊어진다고 하여 신선계곡이라고도 불린다.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병풍처럼 드리워진 봉우리를 바라보며 걷다보면 한 폭의 산수화 속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든다. 여유로운 걸음으로 경치를 감상하며 걷는다면 넉넉잡아 2시간 정도 소요된다. 무려 350m의 높이로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금편암金鞭岩은 금편계곡에 있는 석봉 중에서 가장 높으며 햇빛이 비치면 금빛이 나고 뚜렷한 사각 형태를 보여주는 봉우리이다. 이 금편암에 흥미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만리장성을 축성할 당시 수많은 인부들이 강제로 징집되어 산을 깎고 돌을 운반했다. 관음보살이 이를 가엾게 여겨 자신의 머리 한 다발을 잘라 인부들에게 주었고 그 머리카락으로 새끼를 꼬아서 돌을 나르면 돌이 솟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이 소문을 들은 진시황이 인부들로부터 머리카락을 빼앗아 채찍을 만들었는데 한 번 휘둘렀을 때마다 산 하나를 옮길 수 있었다. 산을 옮겨 바다를 메우려던 진시황의 계획을 알게 된 바다의 용왕이 노하여 채찍에 깃든 술법을 없애버렸고 화가 난 진시황은 채찍을 부러뜨리고 말았는데, 당시 산을 옮기던 신묘한 채찍이 바로 금편암이라는 이야기이다.



## 오관중 우관중 | 吳冠中

삼림공원 입구에서 수려한 산세를 배경으로 당당히 서있는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 오관중의 동상을 만날 수 있다. 그가 1979년 현대적인 감각으로 묘사한 장가계 그림을 국제교류전에 출품했을 때,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보고 장가계를 상상의 장소로만 여기자 오관중은 심사위원들을 장가계로 초청하기에 이른다. 두 눈으로 직접 장가계의 절경을 본 미술 관계자들은 오관중의 그림 속 풍경들이 추상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풍경임을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황석채의 아름다운 풍경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장가계를 세상에 알려 오늘날 중국 최고의 명소로 만든 장본인이 지금도 그곳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봉림지왕 峰林之王,

## 천자산풍경구

티엔쯔산명칭취 | 天子山风景区

천자산 풍경구는 무릉원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시야가 넓고 ‘江八百 峰三千 – 강이 팔백, 봉우리가 삼천 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셀 수 없이 많은 봉우리들이 모여 있어 산세가 매우 깊고도 웅장하다. 이 지역의 토착 민족인 토가족土家族사람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으로 본래 이름은 청암산靑岩山이었으나, 토가족이 과거 그들의 지도자였던 향대곤向大坤을 향왕천자向王天子라고 부른 것에서 지금의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뾰족뾰족한 기암 괴봉들이 뿔뿔하게 솟아 있고 그 사이로 깊은 계곡이 뻗어 있는 모습은 마치 수만 대군의 열병의식을 연상시킬 만큼 장관을 이룬다. 천자산은 늘 우리에게 황홀한 풍경을 선사하지만 구름과 안개가 천자산 사이를 떠다니는 풍경, 달 밝은 밤 그리고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과 눈 내린 겨울 풍경이 특히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다.





## About Tianzi mountain

### 개요 및 일반정보



#### 천자산 코스 3

- 1 무릉원 입구에서 시작해 천자산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오른 뒤 천자산부터 양가계, 원가계까지 둘러보는 코스. 시간과 체력의 여유가 있다면 무릉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심리화랑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 2 1번 코스를 반대 방향으로 다니는 방법으로 교통의 요지인 식계옥 풍경구의 수오 사문에서 출발해 원가계를 거쳐 셔틀버스를 타고 천자산으로 이동하는 코스.
- 3 천자산 입구를 통해 황룡천자연생태선을 따라 천자산 여행을 시작하는 코스. 위의 두 가지 루트에 비해 접근성이 좋지 않고 동선도 효율적이지 않아 이용객은 많지 않다.

#### 천자산 케이블카 티엔쯔산썬다오 | 天子山索道

해발 2,084미터의 천자산은 케이블카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발품을 팔아 3,500개의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야 그 비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1997년 케이블카가 설치된 이후부터 정상까지 편안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고, 케이블카 안에서 천자산의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케이블카를 이용한다. 케이블카의 편도 이동거리는 약 2km로 6분 정도 소요된다. 한 대의 케이블카에는 8명까지 탑승 가능.

편도 72원



## Editor's COURSE

### 추천코스

천자산은 무릉원 입구 또는 천자산 입구를 통해 진입이 가능하며 전망대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른 풍경구와 달리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구간이 대부분이다. 걸어서 이동하기 위한 정식 보행로 역시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시간 또한 무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녀산화** 시엔녀산화 | 仙女散花

먼 옛날 향왕천자가 이끄는 토가족이 봉기를 일으켰다가 크게 패배하고 결국 향왕천자와 토가족 병사들 모두 목숨을 잃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왕천자의 누이동생이 산을 넘고 재를 넘어 천자산에 올라 천자와 병사들의 시신을 찾았지만 슬픈 비람소리와 물소리만 들렸다. 여인은 눈물을 삼키며 온 산의 꽃을 모아 뿌렸고 그대로 돌이 되어 굳어버렸다. 어필봉에서 반대 방향을 바라보면 그곳에 선녀가 꽃바구니를 들고 세상에 꽃을 뿌리는 형상을 한 '선녀산화'가 있다. 얼핏 보서는 어느 것이 선녀산화인지 찾기 힘들지만 설명을 듣고 나면 바위 위로 도렸한 선녀의 얼굴 윤곽이 드러나고 바위 위에 자란 소나무는 머리 장식이, 오른편 작은 바위 위에 자란 소나무는 여지없이 꽃이 된다.


 **어필봉** 위펑 | 御筆峰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아 있는 세 봉우리의 바위 위에 푸른 소나무가 자란 모습이 마치 붓을 거꾸로 꽂아 놓은 모양을 연상시킨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명나라의 십만 관군이 봉기를 일으킨 800여 명의 토가족 병사를 추격했고 이들 사이에 7일 밤낮으로 혈투가 이어졌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토가족의 지도자 향왕천자와 토가족 병사들은 살아서 모욕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고 만다. 자결하기 전에 향왕천자는 그가 쓰던 붓을 하늘을 향해 집어던졌는데 그 붓이 땅에 꽂혀서 만들어진 봉우리라고 하여 어필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한다.







## 점장대

다옌장타이 | 点将台

점장대는 '장군이 명령을 내리는 곳'이라는 의미로 이곳에서 바라보면 천자산의 험준한 봉우리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풍경이 마치 명령을 기다리며 도열하고 있는 병사들처럼 보인다. 점장대에서도 어필봉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이들은 점장대를 어필봉을 가장 멋있게 볼 수 있는 장소로 꼽는다. 점장대를 이루는 봉우리 하나하나의 기세가 금방이라도 솟아오를 듯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봉우리마다 그 위에 소나무가 자라난 모습이 마치 머리카락처럼 보여 몇몇 바위에서 실제 사람의 얼굴과 흡사한 형상을 찾아볼 수 있다.



## 대관대

따관타이 | 大观台

점장대에서 양가계 방향으로 향하는 셔틀버스가 지나가는 도로변에 있는 전망대로 시야가 탁 트여 있어 이름 그대로 천자산의 웅장한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점장대에서는 봉우리들의 기세가 포효하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졌다면 대관대에서는 깊고 아득한 풍경을 넋 놓고 바라보게 된다. 장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중 하나로 손꼽히며, 삭계옥 풍경구에 있는 심리화랑의 아름다운 산세를 눈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





## 공중전원 공중티엔위원 | 空中田园

공중전원은 과거 이곳에서 살아가던 토가족들의 오랜 삶의 터전 이었던 땅으로 높이 솟아오른 바위 산 한가운데에 평평한 경작 지들이 펼쳐져있다. 가장자리로 가면 갑자기 깊고 가파른 절벽이 등장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형상을 띤다. 천자산 내에는 공중전원이라고 불리는 몇 곳이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대 관대 근처에 위치한 곳으로 우후죽순 솟아오른 장가계의 봉우리 들 사이에 솟아 있는 작은 논 하나가 그림처럼 아름답고 신비롭게 모습을 드러낸다. 대관대에서 양가계로 가는 길 목에 또 다른 공중전원이 있으며 셔틀버스를 타고 지나는 길에 볼 수 있다. 둥글기도 하고 네모 각지기도 하며 층 층이 계단을 이루는 크고 작은 밭들이 절벽 뒤로 보이는 날카로운 석봉들과 어우러져 기묘한 풍경을 이룬다.







감초 같은 풍광,

## 삭계옥 풍경구

쑤시구평핑취 | 索溪谷 风景区

토가족 언어로 '안개가 가득한 산촌'이라는 뜻의 삭계옥은 서쪽으로는 국가삼림공원, 북쪽으로는 천자산과 접해 있고 1982년 자연보호구로 선정되었다. 전체 면적이 160km<sup>2</sup>에 이르는 삭계옥 풍경구는 수천 개의 봉우리로 뿔뿔하게 둘러싸인 천자산과 달리 맑은 물이 흐르고 드넓은 호수가 펼쳐진다. 또한 수려한 봉우리, 깊은 계곡, 옥빛을 띠는 물과 동굴이 함께 어우러져 장가계 내에서도 가장 낭만적인 풍경을 선보인다. 대표적인 볼거리로는 하천을 따라 저마다 특색 넘치는 봉우리들이 줄을 지어 선 십리화랑, 천하의 절경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호수 위에서 유유자적 뱃놀이를 즐길 수 있는 보봉호, 압도적인 동굴세계가 끊임없이 시선을 강탈하는 황룡동 등이 있다. 이외에도 약 300개가 넘는 볼거리를 품고 있는 삭계옥 풍경구는 장가계 여행에 감초 같은 풍경과 정취를 선물한다.





## About Suoxi Valley

### 개요 및 일반정보

#### 식계곡 코스

식계곡 안에 포함된 스폿들은 비교적 먼 거리에 각각 떨어져 있어 여느 풍경구들처럼 한 번에 차례대로 감상하기가 쉽지 않다. 심리화랑은 천자산과 원가계 풍경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두 풍경구와 함께 일정을 잡는 것을 추천하며, 무릉원 시내에서 가까운 보봉호는 하루 일정의 첫 코스 또는 마지막 코스로 다녀와도 좋다. 황룡동과 대협곡은 다른 풍경구와 정 반대에 위치하고 있어 두 곳을 묶어 별도의 일정으로 계획하는 것이 편리하다.

####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식계곡

식계곡의 명소들은 그 풍경도 다채롭지만 일정 조율에 있어서도 감초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항상 변화무쌍한 날씨의 영향으로 짧은 장가계 여행 일정에서 단 하루도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날씨에는 산에 올라가더라도 기대했던 풍경을 만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식계곡 풍경구의 핵심 볼거리인 심리화랑이나 보봉호, 황룡동은 비교적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곳들이다. 일기 예보가 좋지 않다면 다음날 일정을 조정해서 찾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식계곡 풍경구이다.



## Editor's COURSE

### 추천코스

무릉원을 기준으로 심리화랑은 서쪽, 보봉호는 남쪽, 황룡동은 동쪽에 제각각 멀리 떨어져 위치하고 있어 동선 보다는 날씨를 고려한 코스를 추천한다. 보봉호는 산정호수이므로 이른 아침 물안개가 자욱한 모습이 더욱 운치 있게 느껴진다. 때문에 오전 일정으로 보봉호에서 유람을 즐기고 심리화랑까지 다녀오는 것이 좋다. 오후에는 황룡동과 함께 대협곡을 둘러볼 수 있다. 대협곡은 식계곡 풍경구에 속하지는 않지만 황룡동과 가까이 함께 둘러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대협곡의 하이라이트는 협곡을 이어주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높은 유리다리. 안개가 유리다리와 협곡을 덮으면 그 아찔한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없으므로 안개가 조금이라도 덜한 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 Zhangjiajie Travel

### 하늘이 그린 풍경, 십리화랑

스리화랑 | 十里画廊



십리화랑을 이름 그대로 풀이하면 '10리에 걸쳐 이어지는 화랑'이다. 천자산 기슭의 협곡을 따라 각양각색의 기이한 봉우리와 암석들이 줄을 지어 한 폭의 거대한 산수화를 보는 것만 같다. 중국의 한 유명 시인은 십리화랑을 유람한 뒤 "기봉이 다투어 하늘을 보려고 하니 천태만상이 화공을 이루노라. 수곡청계가 십리라 사람들은 그림 속을 거니노라"라고 읊으며 한 편의 즉흥시로 십리화랑의 아름다움을 묘사했다. 십리화랑을 대표하는 채약노인암과 삼자매봉 외에도 여러 형상의 봉우리들이 많다. 모노레일을 타거나 산책로를 걸으면서 봉우리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다보면 무언가와 닮은꼴을 찾을 수도 있다. 발견한 봉우리에 자신만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는 것도 십리화랑에서 맛볼 수 있는 깨알재미 중 하나이다.



## 모노레일 | 观光缆车

십리병풍의 산수화 전시관인 십리화랑을 감상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5km 정도의 길을 모노레일을 타고 왕복하는 것, 도보로 왕복하는 것, 그리고 모노레일과 도보를 조합하는 방법이다.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보다 편안하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지만, 빠르게 지나가버리는 멋진 풍경들이 아쉽기만 하다. 오르막에서는 모노레일을 타고 가볍게 풍경을 훑어보고, 내리막에서는 모노레일 선로 옆에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보다 주의 깊게 풍경을 감상하면 어떨까. 모노레일 탑승 시에는 들어갈 때는 왼쪽, 나올 때는 오른쪽에 자리를 잡으면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편도 38원 왕복 52원



## 채약노인암 | 药老仙人岩

차이아오요안론편 | 藥老仙人巖

'약초 캐는 노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위. 진귀한 약재가 가득 담긴 광주리를 등에 지고 노인이 구부정하게 서 있는 듯한 형상이 마치 살아있기라도 한 듯 절묘하다. 자세히 보면 얼굴에 열은 미소를 머금고 시선은 산을 향한 채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



## 삼자매봉 | 三姐妹峰

십리화랑의 하이라이트는 세 개의 거대한 봉우리가 사이좋게 서 있는 삼자매봉이다. 왼쪽에서부터 아기를 안고 있는 첫째 언니, 아기를 업고 있는 둘째 언니, 마지막으로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는 막내의 형상을 한 바위들이 나란히 서 있다. 설명을 듣고 바라보면 정말 바위 하나하나의 모습이 그럴듯하여 더욱 흥미롭다.







## Zhangjiajie Travel

지하의 별천지,

### 황룡동

황룡동 | 黃龍洞



### 연우장가계 연우장가계 | 烟雨张家界

연우장가계소는 황룡동 초입에 위치한 전용 공연장에서 열리며 무릉원을 대표하는 3대 공연 중 하나로 손꼽힌다. 토가족 청년과 묘족 처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민속공연으로 10단락으로 구성되어 90여 분간 진행된다. 로맨틱한 스토리를 비롯해 농경문화와 훈수문화 등 소수민족의 문화를 재연해낸 의미 있는 공연으로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다양한 가무와 서커스가 결합된 화려한 연출 등으로 지루할 틈이 없다.

입장료 198원  
공연시간 매일 19:50~21:20

1983년 한 농부에 의해 발견된 황룡동에는 이름에 얽힌 오래된 전설이 전해진다. 과거 이 동굴에 살고 있던 황룡을 이 지역 사람들이 기름을 갖다 부어서 쫓아냈고 황룡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3억 8천만 년 전, 지금의 황룡동 자리는 바다였다. 그리고 6500만 년 전 지각변동에 의해 땅 위로 솟아올랐고 침식과 퇴적 작용 등에 의해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총 면적 20ha, 길이 약 10km의 석회암으로 구성된 용암 동굴로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총 4층으로 구분된 동굴 내에는 13개의 홀과 3개의 폭포가 있고 2개의 지하 하천이 흐른다. 지하수가 흐르는 일부 구간은 보트를 타고 관람해야 할 정도로 상당한 동굴의 규모를 자랑하고, 입구 부근은 비교적 좁은 편이지만 내부로 들어갈수록 점차 통로가 넓어진다. 둘러보는 내내 끝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각양각색의 석순과 종유석, 석주들이 지하 세계의 또 다른 신비를 전하는 곳. 100년에 1cm 자라난다는 종유석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우후죽순 솟아나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기이한 쇼를 펼쳐 보인다.

입장료 103원  
위치 武陵源区索溪峪镇河口村黄龙洞景区内  
찾아가기 무릉로武陵源에서 1번 버스 탑승 후 황룡동정차장黄龙洞停车场에서 하차. 약 25분 소요.







## Zhangjiajie Travel

호젓한 산정호수,

## 보봉호

바오핑후 | 宝峰湖



보봉호는 해발 430미터 높이에 위치한 산정호수로 협곡의 물길을 댐으로 막아서 만든 인공호수이다. 더없이 호젓한 정취가 내려앉아 있는 이 호수의 평균 수심은 72미터이며 폭이 가장 넓은 곳은 150미터에 이른다. 산 위에 위치하고 있어 경사가 꽤 가파르고 보봉호 입구주차장에서 비교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하기보다는 셔틀버스를 타고 선착장까지 이동한다. 보봉호 입장료에 유람선 탑승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셔틀버스 탑승권은 추가로 25원을 지불해야 한다. 유람선을 타는 한 시간 남짓 수려한 산봉우리들을 감상하고 있으면 잔잔한 물결처럼 마음이 평온해진다. 뱃길 중간 중간 소수민족인 토가족 총각과 처녀의 청아한 사랑 노래가 흘러온다. 여자와 남자가 서로 세 번씩 노래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토가족의 아름다운 전통을 눈과 귀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다.

입장료 96원  
위치 武陵源区索溪镇宝峰路8号  
찾아가기 시내에서 도보로 약 25분 이동. 또는 택시로 7분 이동.



### 보봉비폭 바오핑페이후 | 宝峰飞瀑

보봉호 입구 주변의 거대한 폭포 산 속 호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보봉비폭은 재미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아침에 출근한 직원이 수문을 열어 호수의 물을 내려 보내고 퇴근할 때 수문을 닫으면 더 이상 폭포가 떨어지지 않게 된다. 때문에 보봉비폭이라는 원래 이름이 아닌 출퇴근폭포라는 이름으로 흔히 불리고 있다.



### 와와어 와와위 | 娃娃鱼

보봉호의 바닥에는 와와어가 살고 있다. 와와娃娃는 중국어로 아기를 뜻하는데 실제 울음소리가 아기가 우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한다. 와와어는 3억 5천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 온 살아있는 화석이다. 도롱뇽과 닮았으며 크기는 2m 정도까지 자란다. 호수 깊은 곳에 살기 때문에 시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이전에는 와와어가 흔해서 수출도 했지만 지금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장가계의 일부 음식점에서 그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다.







## Zhangjiajie Travel

자연이 빚은  
또 하나의 신비,

## 대협곡

따사구 | 大峡谷



최근 국내 예능 프로그램에 바닥이 훤히 드러난 아찔한 유리다리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어 모았던 대협곡은 전형적인 석회암 웅암 지대로 계곡이 깊고 길며 대협곡 내에 수많은 작은 협곡들을 포함하고 있다. 절벽이 가파르고 기이한 봉우리들이 곳곳에 진을 치듯 솟아나 있으며 크고 작은 폭포와 동굴이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다. 수목이 울창하고 웅장하면서도 아가자기한 멋이 장가계의 다른 산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뽐내낸다. 황룡동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동선의 편의상 함께 둘러보는 경우가 많으며, 유리다리를 건넌 뒤 대협곡의 자연을 만끽하며 트레킹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일반적이다.

입장료 A코스(대협곡만) 121원, B코스(대협곡+유리다리) 259원, C코스(유리다리만) 141원

위치 张家界市慈利县三官寺乡张家界大峡谷游客中心

찾아가기 무릉원 버스터미널에서 자리현慈利县 행 버스 탑승 후 대협곡에서 하차. 약 40분 소요. 영정구에서 출발할 경우 시내 버스터미널에서 대협곡 행 버스 탑승. 약 1시간 소요.



## 대협곡유리다리

따사구보리타이오 | 大峡谷玻璃桥

2016년 8월에 개통된 대협곡유리다리는 높이 약 300m, 길이 약 430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긴 투명 유리다리이다. 대협곡을 대표하는 볼거리이자 장가계 최고의 공포체험 장소로 자리매김한 유리다리에 올라가면 발아래로 수백 미터 높이의 낭떠러지가 아찔하게 펼쳐진다. 그 모습을 보고 다리 난간을 붙잡은 채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대협곡유리다리의 공포스러운 명성은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현재 다리 한가운데에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는 번지점프대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 큰 짐이나 뽀족한 물건, 카메라의 반입은 불가하며 유리의 훼손을 막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덧신을 신어야 한다. 하루 8천 명으로 방문 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에 앞서 사전 예약은 필수.



## 대협곡 트레킹

유리다리를 지나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잔도가 이어진다. 이곳을 지나며 올려다보는 협곡과 유리다리의 풍경 역시 독특하고 이색적인 멋을 드러낸다. 잔도의 중간 지점에서 35원을 지불하고 심보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거나 계속해서 잔도를 따라 협곡 아래로 내려가면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이어진다. 약 2시간 정도의 코스로 편안한 신발과 복장을 하는 것이 좋다. 무성한 수풀 사이로 깔끔하게 정돈된 산책로를 따라 맑은 물과 크고 작은 폭포가 흐르며 각종 기암괴석과 동굴 등 다채로운 풍경이 차례로 펼쳐지면서 대자연 속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 슬라이드 화따오 | 滑道

협곡 위에서 아래까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600m 길이의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올 수 있다. 유리다리를 건너지 않고 대협곡만 둘러보는 A코스를 선택했을 경우에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편의성과 재미를 모두 갖추어 유리다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대협곡을 대표하는 명소였다.

편도 30원.

### 천하폭포 티엔허푸부 | 天河瀑布

과거 인근에 거주하는 토가족들에게 물은 정말 귀한 것이었다. 먹을 물을 구하기 위해 5시간 동안 산을 넘어서 샘물을 길어와야 했던 것.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1964년부터 7년 동안 10km 떨어져 있는 샘으로부터 물길을 뚫고 남방홍기가(南方红旗)라는 절벽 수로를 만들었고, 결국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천하폭포는 그 수로를 통해 흘러들어오는 물로 생긴 폭포라고.

### 원통절벽 위엔통쥐에베 | 圆桶绝壁

원통절벽은 자연적으로 생긴 둥근 모양의 절벽으로 나무는 자라지 않고 잡초들만 자라나 있다. 지질학자들과 식물학자들도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대협곡의 미스터리 중 하나다.



1 슬라이드 2 천하폭포 3·4 원통절벽  
5 수렴로 6 유람선

### 수렴로 슈이리엔루 | 水帘路

협곡 사이의 산책길 중 물이 떨어지는 바위 절벽 아래의 통로를 이른다. 바위가 지붕의 처마처럼 산책로 위를 덮고 있으며 물이 절벽에서 흘러내려오다가 바위를 따라 흘러 산책로로 비처럼 떨어진다. 트레킹의 더위를 말끔히 식혀주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젖지 않으면 빠르게 지나가야 한다.

### 호접천폭포 후디엔푸부 | 蝴蝶泉瀑布

나무와 풀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물줄기 주위로 나비가 춤을 추며 날아다니고 하여 나비샘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장가계의 웅장한 자연 경관들 사이에서 만나는 소소한 풍경이 장가계의 또 다른 멋을 전한다.

### 막막동 모모둥 | 摸摸洞

너무나 어두워서 땅과 벽을 손으로 짚으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다가 하여 더듬을 막막 자를 써서 그 이름을 붙였다고 전한다.

### 유람선

협곡 끝에 다다르면 산책로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작은 선착장이 나타난다. 10분 정도 배를 타고 가이하는 구간. 석회 지대로 비취색을 띠는 물의 아름다움이 협곡과 어우러져 대협곡의 대미를 장식한다. 풍경을 감상하며 선착장에 도착하면 다른 풍경구 또는 무릉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셔틀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장가계 여행의 거점,  
**무릉원 시내**

중국의 대표적인 산수山水 여행지인 장가계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영정구보다는 무릉원구를 장가계 여행의 거점으로 삼는 편이다. 천문산만이 위치하고 있는 영정구보다는 원가계, 양가계, 천자산, 황석채, 삭계옥, 대협곡 등 장가계를 대표하는 대부분의 풍경구들이 모두 모여 있는 무릉원구가 자연스럽게 장가계 여행의 중심이 됐다. 무릉원의 기묘한 산세에 둘러싸인 무릉원 시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로 시내 어느 곳이라도 금방 도착할 수 있다. 높은 건물은 없지만 날로 발전하는 여행 산업을 바탕으로 오래된 자연과 전통 위에 세련미를 더해가고 있는 시내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 매력상서 메이라상시 | 魅力湘西

매력상서는 상서지역의 노래와 춤으로 이루어진 한편의 대서사시로 2000년에 처음 무대에 올랐다. 매회 2,600여 석의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역동적인 울동과 웅장한 북소리 등 화려한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상서지방 내 소수민족들의 독특한 결혼 및 장례 문화, 종교 생활 등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춤과 노래가 무대를 가득 채운다. 1장에서는 낭만의 상서라는 주제를 통해 춤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요족의 독특한 풍습 등이 연출된다. 2장의 주제는 신비의 상서로 원시적인 몸짓으로 진행되는 토가족의 제사를 표현한다. 3장의 주제는 즐거운 상서이며 상서 지방에서 춤과 술로 손님을 맞이하는 연화와 남녀가 서로의 짝을 찾는 남녀회 그리고 결혼 한 달 전부터 시집가는 날까지 우는 토가족의 전통 풍습이 재현된다. 4장에서는 타지에서 객사한 상서 지방 사람을 강시로 부활시켜 고향으로 데리고 오는 설화를 춤과 노래로 표현한다. 극 중간 중간에 사회자가 등장해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무대에 대한 집중도 역시 높은 편. 실내 공연이 마무리된 후 야외에 마련된 무대에서 차력 쇼 등의 또 다른 공연이 펼쳐진다.

**입장료** A구역 308원, B구역 268원, C구역 228원

**공연시간** 1부 19:30~21:00, 2부 21:00~22:30

※성수기에는 공연 1회 추가 18:00~19:30, 비성수기에는 1일 1회 공연 20:00~21:30

**위치**武陵源区桂花路20号

**찾아가기** 장가계 풀만 호텔 옆



## 군성사석화 편성샤스화 | 軍聲砂石画

영정구에는 군성화원이 있고, 무릉원구에는 군성사석화가 있다. 역시 돌과 모래 등 자연 재료를 이용해 그리는 사석화의 대가 이군성과 그의 제자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곳. 작품을 전시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틀리에'라는 표현이 더욱 어울린다. 무릉원구의 군성사석화는 영정구의 군성화원보다 제자들의 작품 비율이 높다. 이군성의 제자들은 저마다의 개성과 독창성을 담아 스승의 것과 같은 듯 또 다른 미묘하고 독특한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이는데 이군성의 작품보다 그 제자들의 화풍이 더 인상적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수백,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값비싼 작품들이 대부분이지만 여행자들의 기념품용으로 제작된 부담스럽지 않은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다. 굳이 만져보지 않더라도 그 질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특별한 그림들. 장가계 기념품으로 이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을지도 모른다.

**위치**武陵源区溪布街WD06栋52号

**찾아가기** 무릉원 버스터미널에서 1번 버스 탑승 후 계포가 정류장에서 하차.







## ☎ 계포가

시부지에 | 溪布街

계포가는 상서지방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토가족과 묘족 등의 전통거리를 재현한 곳이다. 군성사 석화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7km에 이르는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입구에서부터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 풍기는 계포가의 동쪽에는 장가계 대극장이 위치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보봉교와 접해 있으며 그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보봉호 입구에 닿는다. 강변을 따라 멋진 전망의 카페와 바들이 이어지고, 전통 공예품과 특색 있는 먹거리, 독특한 공방과 객잔 등 다양한 상점과 시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어 자연 관광 일색의 장가계 여행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다.

**위치** 武陵源区宝峰桥北  
**찾아가기** 무릉원 버스터미널에서 1번 버스 탑승 후 계포가 정류장에서 하차.



## 🏯 화궁전 화궈펄엔 | 火宫殿

1577년에 건립된 4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화궁전은 과거 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장소였다. 청나라 말기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종교, 음식, 민속, 예술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대중문화공간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2015년 계포가에 새롭게 문을 연 화궁전은 불의 궁전이라는 이름과 어울리도록 나무와 기와를 주로 이용해 건물을 세우고 빨간 풍등과 깃발로 꾸몄다. 장사 정통 취두부臭豆腐와 탕유 파파糊油粿 등의 향토음식이 화궁전을 대표하는 메뉴이며 삼화과, 민물고기전골, 선지볶음 등 다양한 메뉴로 저마다 다른 손님들의 입맛을 책임지고 있다.

**위치** 武陵源区溪布街66号



## ☎ 등니 등니 | 等你

화궁전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카페 겸 바. 공간의 반은 땅 위에 걸쳐 있고 반은 강 위에 자리 잡았다. 공간의 2면이 통 유리로 되어 있어 바깥 풍경이 시원스럽고, 가게 곳곳을 채우고 있는 아기자기한 장식품과 화초들 덕분에 이국적인 분위기가 가게 안에 가득하다. 눈앞에 흐르는 강과 무릉원에서 뿔어져 내려온 낮은 구름을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려야만 할 것 같은 곳. 커피, 와인, 맥주, 칵테일 그리고 간단한 요거리를 판매하고 있다.

**위치** 武陵源区S306西部街水上平  
**찾아가기** 화궁전 맞은편.



## ☎ 총총나년 총총나니엔 | 匆匆那年

대만의 청춘 영화 제목에서 이름을 따온 카페 겸 바. 동명의 영화는 서로 좋아하던 고등학생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결국 누구도 먼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서로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시절을 마음에 묻은 채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보봉교 근처의 강변에 자리한 이 공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순수했던 시절의 감정을 잠시 떠올려보게 될지도 모른다. 낮에는 차와 커피를 판매하며 밤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바로 변신한다.

**위치** 武陵源区溪布街  
**찾아가기** 화궁전에서 골목길을 따라 서쪽으로 약 200m 거리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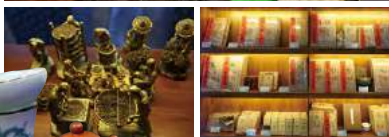


## ☎ 우견 요우피엔 | 又见

등니의 왼편에 위치한 우견 뮤직바. 유럽풍과 중국풍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가게 테라스에 뿌리를 내리고 솟아올라 가게의 지붕을 덮고 있는 큰 나무 한 그루와 지붕 위에서 꽃망울을 내려뜨리고 있는 화초들 덕분에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에 마치 자라나고 있는 듯 생동감 있게 느껴진다. 무릉원에서 라이브 음악과 함께 장가계의 밤을 운치 있게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위치** 武陵源区S306西部街水上平  
**찾아가기** 화궁전 맞은편.





## Miland 시마이위엔 | 西麦园

천자루에 자리한 전통 양식의 건축물들 사이에서 파란색 간판과 외관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베이커리. '신선하고 건강한 빵'을 모토로 당일 만든 빵만을 판매하며, 만든 지 16시간이 지난 빵은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 이곳은 무엇보다 주문 제작 케이크 서비스로 특히 유명하다. 무릉원 여행 중 생일 또는 특별한 날을 맞이했다면 이 집의 케이크로 이벤트를 준비해보자.

**위치** 武陵源区宝峰桥头  
**찾아가기** 무릉원 버스터미널에서 1번 버스 탑승. 채정로 입구渠场路口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3분.



## 도연차업 따오란차에 | 道然茶业

도연차업은 계포가 바로 옆에 위치한 차 판매점으로 이상적인 고도와 위도, 풍부한 강수량 등 차 재배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도연생태차원에서 재배하는 차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차의 종류가 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입맛에 맞지 않거나 몸에 잘 받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는 것이 당연지사. 모름지기 차를 구입할 때는 먼저 그 맛을 음미하며 자신에게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가게 한 편에 마련된 티 테이블에서 원하는 차를 얼마든지 시음해볼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시음을 요청해도 좋다.

**위치** 武陵源区天子路175号  
**찾아가기** 무릉원 버스터미널에서 1번 버스 탑승. 채정로 입구渠场路口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3분.



## E-Pino 이핀러 | 一品乐

무릉원에서 가장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갖춘 카페 겸 베이커리로 카페를 찾기 어려운 무릉원에서 가문의 단비 같은 공간이다. 차를 즐겨 마시는 중국에서 카페 붐이 일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E-Pino는 벌써 15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커피를 비롯한 다양한 음료를 판매하고 있으며 빵 종류도 다양해서 근처 객잔에 머무를 경우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하기에도 좋은 장소.

**위치** 武陵源区武陵路工商银行斜对面  
**찾아가기** 무릉원 버스터미널에서 1번 버스 탑승. 무릉원정부武陵区政府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1분.

## 삭계산채 쉬산산짜이 | 索溪山寨

계포가 근처에 위치한 삭계산채는 상서 요리 및 토가족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이다. 황소고기를 매콤하게 삶아낸 상서대편황우남湘西大片黄牛腩, 두부와 돼지고기로 만든 토저육외자제두부土猪肉煨自制豆腐, 장가계의 특산품인 목이버섯을 넣은 닭요리 암이둔토계류耳炖土鸡 등 토가족 전통요리를 전문으로 하며 토가족 전통비법으로 직접 빚은 8가지 종류의 자양주自酿酒를 맛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곳이다.

**위치** 武陵源区天子路溪布街入口  
**찾아가기** 무릉원 버스터미널에서 1번 버스 탑승. 채정로 입구渠场路口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3분.



## 한복궁 한푸궁 | 韩副宫

연길 출신의 조선족 교포 주인장이 운영하는 한식당으로 한국에서 6년 동안 한식 조리법을 익힌 주인장의 요리 솜씨는 한국인 여행객들의 입맛을 완벽히 만족시킨다. 이 집의 대표 메뉴는 오리불고기와 오리구이로 다른 단체 한식당들과는 차별화된다. 오리는 산에서 풀어 키우는 건강하고 맛있는 오리를 이용하여 건강하고 맛도 좋은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오리고기 외에도 김치돼지찌개, 삼겹살구이 등 다양한 한식 메뉴를 갖추고 있다.

**위치** 武陵源区武陵路四叶城化妆品超市旁  
**찾아가기** 무릉원 버스터미널에서 1번 버스 탑승. 계포가溪步街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1분.



## 저뇌각량면 쭈마오커량미엔 | 猪脑壳凉面



현지의 시원한 비빔국수인 량면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천자로 초입에 위치해 있다. 한 그릇에 우리돈 1,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부담 없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량면凉面은 국수를 식혀서 갖은 양념과 비벼 먹는 음식으로 얼음을 넣어 차갑게 만드는 한국식 냉면冷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여름철 입맛을 되살려줄 별미라는 점은 같다. 량면 외에도 다양한 면 요리와 도시락, 빙수와 커피, 주스 등도 판매한다.

**위치** 武陵源区天子路溪布街入口  
**찾아가기** 무릉원 버스터미널에서 1번 버스 탑승. 채정로 입구渠场路口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1분.

## 홍부네집 썍푸즈자판띠엔 | 兴福之家饭店



한복궁과 함께 무릉원을 대표하는 한식당으로 오삼불고기가 대표메뉴이며 칼칼한 된장찌개도 이 집의 별미다. 그날그날 제공되는 요리의 종류가 다르며 버섯전골, 소고기전골, 감자탕, 김치찌개, 불고기, 닭백숙, 쏘리매운탕, 보쌈, 닭도리탕 등 웬만한 한국음식은 모두 맛볼 수 있다. 반찬의 무한리필이 가능하지만 10여 가지의 반찬을 하나씩 맛보다 보면 이미 배가 불러온다.

**위치** 武陵源区军地坪街道未央路锦华大酒  
**찾아가기** 무릉원 버스터미널에서 도보 4분.





## 크라운 플라자

나바이리황관자아리자우디엔 | 纳百利皇冠假日酒店

전통의 아름다움을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재현해낸 무릉원 대표 5성급 호텔. 무릉원 버스터미널 및 쇼핑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시내 중심가까지 차로 5분 거리이며, 호텔 바로 앞에는 매력상사소가 열리는 공연장이 있다. 총 698개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모든 객실에 평면 TV와 위성 채널, 편안한 의자와 책상 그리고 고속의 무료 인터넷이 제공된다. 안락한 잠자리를 위해 인체공학적으로 제작된 베개 및 라벤더 아로마, 따뜻한 우유 또는 레드 와인 이 제공되어 산행의 피로를 풀기에 부족함이 없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로비 라운지에서는 칵테일 차 등을 간단한 다과와 함께 즐길 수 있으며 호텔 내 레스토랑에는 양식과 중식은 물론 무슬림 요리까지 준비되어 있어 크라운 플라자만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다.

**위치** 张家界高云路  
**찾아가기** 풀만 호텔 우측에 위치.



## 풀만 장가계

보얼만징우자우디엔 | 铂尔曼京武酒店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 속 작은 지상낙원, 풀만 장가계는 무릉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아코르호텔 계열의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 호텔이다. 동남아시아의 럭셔리한 리조트를 연상케 하는 아국적인 외관이 제일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한 훌륭한 내부 컨디션과 주요 여행지까지의 편리한 접근성 등은 풀만 장가계가 오랫동안 무릉원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호텔로 인정받아온 사실을 설명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456개의 객실은 Deluxe Suite, Deluxe Executive, Superior 등으로 나누어지며 전 객실에서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해 투숙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야외 수영장, 피트니스 라운지, 미팅룸, PC룸, 연회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친절한 컨시어지 서비스는 물론 수하물 보관, 환전, 투어데스크, 자전거 대여 등의 폭넓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위치** 武陵源区画卷路1号  
**찾아가기** 무릉원 버스터미널에서 1번 버스 탑승, 산장山莊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







## 청화강대주점

청허판장귀지우디엔 | 青和锦江国际酒店

청화강대주점은 무릉원 시내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한 5성급 호텔이다. 장가계공항과 가차역으로부터 40분 거리로, 무릉원 입구는 불과 600m 떨어져 있고 황룡동과 보봉호 등도 차로 10분 이내에 도착 가능하다. 총 28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넓은 공간의 객실에는 거실, 미니 바, 욕조 등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창문을 통해 보이는 고즈넉한 풍경은 반드시 청화강대주점에 묵어야만 하는 이유 중 하나. 사우나, 수영장, 노래방, 비즈니스 센터, 탁구장, 멀티미디어 컨퍼런스룸, 다용도 홀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관광 안내 및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치** 武陵源区军部路1号

**찾아가기** 무릉원 버스터미널에서 1번 버스 탑승. 채장로 입구菜场路口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3분.

## 좌인객잔

푸어린커잔 | 左邻客栈

좌인객잔도 비교적 최근에 문을 연 객잔으로 계포가 근처에 자리하고 있으며 맛집, 카페, 마트, 시장 등이 가까운 거리에 모여 있어 무릉원 여행의 거점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 토가족과 묘족의 특색이 녹아 있는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며 1층에는 티 테이블과 영화감상실, 야외버비큐존, 사재까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와이파이가와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프런트 데스크는 24시간 오픈되어 여행객들의 편의를 챙긴다. 객실 내에는 평면TV, 에어컨, 샤워실 등이 완비되어 있다.

**위치** 武陵源区天子路宝峰桥头(近古庸路)

**찾아가기** 무릉원 버스터미널에서 1번 버스 탑승. 채장로 입구菜场路口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3분.



## 모소객잔

마오사오커잔 | 冒骚客栈

2015년에 문을 연 깔끔한 객잔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남이 하지 않았던 일을 용감하게 해낸 다'라는 당당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넓은 로비가 게스트하우스 분위기로 꾸며져 있으며 한쪽에는 여행자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건물 중앙에 수영장이 있어 여유로운 공간감을 연출하고 다른 건물들보다 약간 높이 자리한 옥상으로 올라가면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다양한 객실 종류로 개별 여행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특히 패밀리룸은 호텔 못지않은 시설과 더불어 객잔 고유의 독특한 맛이 녹아 있어 가족 여행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위치** 武陵源区武陵路工商银行斜对面

**찾아가기** 무릉원 버스터미널에서 1번 버스 탑승. 채장로 입구菜场路口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1분.



## 대제라텍스

따띠루자오 | 大帝乳胶

장가계에 온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기념품 중 하나가 바로 라텍스이다. 중국에도 고무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천연 고무나무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라텍스는 원적외선 및 음이온이 방출되고 세균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제라텍스는 천연 라텍스로 만든 매트리스, 베개 등 다양한 라텍스 제품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며 비교할 수 있는 곳. 넓은 공간에 라텍스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필요하면 따로 마련된 강의장에서 장가계 라텍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위치** 武陵源区天子路

**찾아가기** 무릉원 버스터미널에서 1번 버스 탑승. 무릉원 정부武陵源区政府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2분.



놓칠 수 없는  
**장가계**  
근교여행

웅장한 산속에 숨겨진 비경에 취해 하루하루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도 모르는 장가계 여행. 천문산과 무릉원 지역만 둘러봐도 어느덧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지만,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자. 장가계의 볼거리들과는完연하게 다른 국보급 신비스러운 풍경들이 멀지 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중국 4대 고성 중 하나로 꼽히는 봉황고성의 낮과 밤, 붉은 암석으로 뒤덮여 마치 외계에 온 듯한 돌숲 홍석림, 세계적인 호평을 받은 영화 '부용진'의 그곳 부용진 마을 그리고 길에서 우연인 듯 만나는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묘족마을 먹용묘채까지. 장가계 여행을 보다 풍성하게 해줄 장가계 근교여행. 이틀이면 그웬잇, 부지런을 떤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다녀올 수 있는 놓쳐서는 안 될 명소들을 소개한다.











Zhangjiajie  
Travel

## 봉황고성

평항꾸청 | 凤凰古城

장가계를 찾는 여행객들이 가장 욕심내는 근교여행지 1순위로 꼽는 봉황고성은 후난湖南성 상시시 토가족묘족湘西土家族苗族 자치주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가계에서 차로 약 4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중국 국가지정 4A급 풍경구이자 중국 국가기중점문화유산보호단위로 지정된 마을로, 천년 이상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묘족을 비롯한 여러 소수민족들이 그들의 전통을 영위하며 살아내고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봉황고성은 뜻밖의 매력을 갖고 있는 여행지. 이미 중국에서는 유명하다. 흔히 떠올리는 고성의 고즈넉한 풍경보다는 밤이 되면 180도 변신하는 밤의 화려한 풍경 때문. 타강을 가로데 두고 좌우에 늘어선 옛 건물들은 저마다 색깔 짙은 조명으로 빛을 밝히고 요염한 모습을 드러낸다. 타강에 드리워진 휘황찬란한 조명의 반영이 어둠을 잊아 가면 곳곳의 바와 클럽에서 흘러나오는 강력한 음악소리들이 고성 전체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고성 마을 내부와 성벽 밖의 타강변으로 크게 나누는 봉황고성은 차분한 낮과 무아지경의 밤이 공존하는 현장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여행지이다.

위치 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凤凰县凤凰古城





## 📷 홍교 홍차오 | 红桥

거대한 영화세트장을 방불케 하는 봉황고성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곳, 홍교. 입구에 서부터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홍교는 봉황고성을 상징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타강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봉황고성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하기에 그만이다. 2층으로 이루어진 홍교에 들어서면 상점마다 진열되어 있는 흥미로운 상품들이 제일 먼저 여행객을 맞이한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묘족과 토가족 등 소수민족들의 전통적인 생활용품과 특산품들이 끊임 없이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붙잡고, 곳곳에서 흥정을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밤이 되면 홍교를 통과하는 나룻배와 함께 더욱 낭만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위치** 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凤凰县虹桥江天广场大门二楼(江天广场南门口)



## 📷 남화교 남화교 | 南华桥

봉황고성 여행의 시작점이자 최고의 야경 포인트인 남화교는 홍교 바로 뒤에 자리 잡은 현대식 교각으로 그 규모와 높이가 꽤 크고 높아서 교각 위에 올라서면 아찔한 기운이 느껴질 정도이다. 하지만 알록달록한 조명들이 하나 둘 불을 밝히고 타강 위를 비춰 세상이 오색찬란하게 옷을 갈아입게 되면 남화교가 선사하는 풍경은 세상 어느 곳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야경이라고 할 수 있다.

**위치** 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凤凰县虹桥江天广场大门二楼(江天广场南门口)



## 📷 타강벚놀이 타강요우환 | 沱江游船

봉황고성의 아름다움은 타강과 함께 한다. 마을을 양 옆에 두고 길게 흐르는 타강 주변으로 오래된 중국의 역사가 밤낮으로 모습을 바꿔가며 지금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타강을 따라 거닐기도 하고 교각에 올라 발아래 펼쳐진 전망을 감상할 수도 있지만 작은 나룻배를 타고 유유히 벚놀이를 즐기며 또 다른 시선으로 봉황고성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담아볼 수 있다. 물 위에서 바라보는 수상가옥과 그곳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 보는 시간은 강이 선사하는 넉넉한 운치를 만끽하며 '중국의 베네치아'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위치** 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凤凰县文星街标营街路口附近



## 📷 바거리 빠자에 | 吧街

휘황찬란한 조명이 타강 주변을 밝히기 시작하면 강가에 자리 잡은 옛 건물들에서 다채로운 음악들이 흘러나온다. 쿵쿵대는 클럽뮤직부터 감미로운 기타 선율까지 집집마다 분위기에 맞춰 적절한 크기와 빠르기의 음악을 틀고 밤의 파티를 시작하는 것.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강 건너의 객잔거리에서도 음악 소리가 들릴 정도로 소란스럽지만 밤 11시 30분이면 음악을 모두 끄게 되어 있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옛 마을에서 흥대의 어느 클럽에 와 있는 기분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어둠이 찾아오길 기다리자.

**위치** 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凤凰县凤凰古城北边街对面







### ☕ 영자카페 | 잉쯔카페이 | 影子咖啡

타강의 한 쪽 편이 클럽과 바 등으로 화려하게 밤을 불태운다면 강 건너 반대편은 객잔거리가 길게 이어져 비교적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부드러운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간단히 저녁식사와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리고 싶다면 객잔거리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영자카페를 찾아볼만하다. 창밖에 펼쳐진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며 넉넉한 저녁시간을 보내기 좋은 카페로 출입구를 감싸고 있는 나뭇잎 장식과 카페 내부를 은은하게 비추는 다양한 모양의 조명이 인상적이다.

위치 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凤凰县凤凰古城北门码头(沱江泛舟处)

### 🍲 알자반장 | 까즈판짬 | 嘎子饭庄

봉황고성 입구 앞에 위치한 3층 건물의 상서요리 전문점. 사천성의 매운 맛과 호북성의 짭 맛이 어우러진 요리들이 이 집의 대표적인 메뉴들이다. 향이 강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맛이 무난해 중국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들도 부담 없이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메뉴가 굉장히 많은 편이며 메뉴판에 사진이 있어 음식을 고르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가격도 비교적 괜찮은 편.

위치 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凤凰县江天广场大门右侧



### 📷 봉황고성 마을 탐방

중국의 4대 고성으로 일컬어지는 봉황고성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타강과 그 주변으로 펼쳐진 수상가옥 및 건축물 등의 풍경이 나타나지만, 봉황고성이 간직한 옛 풍경과 전통은 성 내부에 자리 잡은 마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좁은 골목을 따라 소수민족들의 삶의 방식을 지키고 있는 오래된 가옥과 상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길목마다 사원과 박물관과 같은 볼거리와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길거리 음식, 전통과자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낸다.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이자 봉황의 자랑인 소설가 심종문沈從文的 고택, 봉황 조각상이 광장 한가운데를 지키고 선 마을광장, 그리고 또 다른 시선으로 봉황고성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남화산에 이르기까지 마을 한 바퀴를 둘러보는 데에도 반나절 이상은 족히 필요하다. 항상 수많은 여행객들로 붐비는 곳이니 비교적 한산하고 여유로운 이른 아침이 쾌적한 마을 탐방을 즐기기에 좋다.







### 객잔거리 카판차에 | 客棧街

봉황에서 1박 이상을 계획했다면 봉황고성의 한쪽 편에 길게 자리 잡은 객잔거리에서의 숙박은 어떨까. 보다 특별한 여행의 경험을 위해 하루쯤 묵어도 좋은 객잔거리는 밖에서 보면 낡고 불편할 것 같은 모습이지만 객잔의 내부는 웬만한 부티크 호텔에 견주어도 될 만큼 예쁜 인테리어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많다. 강변 방향 객실에는 대부분 아름다운 비갈 풍경을 감상하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발코니가 갖춰져 있거나 커다란 창이 있어 더욱 만족스럽다. 게다가 규모가 큰 호텔에 비해 비교적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주머니가 넉넉지 않은 여행객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곳. 혼행족을 위한 싱글룸을 비롯해 친구, 가족, 연인 등 다양한 손님들을 위한 객실이 마련되어 있어 선택의 폭도 자유롭다. 이곳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맞은편 클럽과 바 등에서 들려오는 큰 음악 소리는 밤 11시 30분이 되면 일제히 꺼지니 참고할 것. 발코니에 앉아 밤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절로 와인 한 잔이 생각날 만큼 로맨틱하다.

**위치** 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凤凰县凤凰古城北边街







### 봉황성정품주점

평향성정품주점 | 凤凰城精品酒店

봉황성정품주점은 봉황고성에서 가장 핫한 위치 중 하나인 복문 부두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다. 봉황에서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호텔로 손꼽히면서 고급스러운 부티크호텔로도 손색이 없는 이 호텔은 외부에서는 그 면모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지만, 내부에 들어서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하나의 예술품처럼 중심에 우뚝 선 기둥과 겹겹이 늘어선 회랑, 대들보 등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한 고성 of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야외 테라스에서는 다양한 무늬의 돌기둥과 돌의자, 각양각색의 정교한 공예품들이 호텔의 기품을 더해준다. 객실 내부의 고풍스런 인테리어와 중국 전통양식의 조각들은 모두 명장의 손길로 만들어졌으며 다기와 서화 등도 예술적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영문 표기는 Phoenix City Boutique Hotel 이다.

**위치** 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凤凰县沱江镇老营哨145号



### 봉황가든호텔

평향화원주점 | 凤凰花园酒店

2012년 문을 연 5성급의 봉황가든호텔은 봉황고성 입구에서 타강을 따라 약 10분 정도 차를 타고 내려오면 위치하고 있다. 중국 후아스 타일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흰색 건물과 푸른 정원이 입구에서부터 깔끔하고 모던한 중국식 분위기를 연출한다. 봉황의 중심이 아닌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한적하고 조용한 휴식이 가능한 호텔로 객실에서 타강을 조망할 수 있으며, 객실 내부도 비교적 깔끔한 편이다. 호텔 내 정원을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좋고 여행자가 있는 시내중심까지 걸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치** 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凤凰县杜田村5组

**전화** +86 743 366 6666

[www.fenghuanggardenhotel.com](http://www.fenghuanggardenhotel.com)







Zhangjiajie  
Travel

## 부용진

푸룽쥔 | 芙蓉镇



1989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상영됐던 중국영화의 제목이 부용진이다. 1980년대 중반 중국의 쉐진 감독에 의해 제작된 이 영화의 실제 배경인 후난성 서쪽의 작은 마을 부용진은 본래 왕촌(王村)으로 불렸지만, 영화 부용진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마을 이름 역시 부용진으로 바뀌게 됐다. 3천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소수민족 마을의 가장 큰 볼거리는 약 60m의 높이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폭포와 폭포가 쏟아지는 절벽 위에 자리를 잡은 전통가옥들의 기묘한 모습이다. 중국 국가 4A급 풍경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중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옛 마을 중 하나로 손꼽힌다. 게주 토사 광장, 동주원, 토인거혈유적지 등 몇 개의 색선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입구에서부터 안내판을 따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다. 영화 속 주요 무대였던 쌀두부집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으며 청석판 길이 끝나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장가계 버스터미널에서 부용진 버스터미널까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이른 아침부터 버스가 운행되어 장가계에서 당일치기 여행으로도 다녀올 수 있는 곳이다. 입장료는 성인 110위안.

위치 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永顺县境内



## 계주토사광장

시저우투스광창 | 溪州土司广场

부용진의 옛 이름은 계주이다. 토왕조를 설립한 토사왕의 치소가 이곳에 있었으며, 토사왕이 손님을 맞이하던 광장으로 이곳에서 춤을 추었다고 전한다.



## 동주원

통꾸위엔 | 铜柱园

계주지사 팽사수와 호남을 다스리던 초나라의 왕 마희범이 계주의 지배권을 놓고 싸웠던 계주전쟁에서 팽사수는 패배했고, 둘은 1년 후 상호불가침 맹약을 맺고 구리 기둥을 세워 각자의 지역을 통치했다. 이곳에 세워진 조각상은 마씨와 팽씨가 파를 마시면서 맹세하는 장면을 형상화 하였으며, 계주동주는 1961년 국무원으로부터 첫 국가 중점보호문물로 등록되었다.

## 부용진폭포

푸룽전푸뿌 | 芙蓉镇瀑布

높이 60m, 넓이 40m의 규모로 2단으로 나누어져 쏟아지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우기 때에는 수량이 더욱 풍부해져 보다 멋진 풍경을 연출하고, 그 소리가 10리 밖에서도 들린다고 전한다. 현지들은 부용진을 '폭포에 걸려있는 천년고진'으로 부른다.



## 토왕행궁

투왕상공 | 土王行宫

토왕행궁은 역대 토사왕이 피서를 와서 머물던 왕궁이다. 후왕궁으로도 불리는 이곳의 건축물은 명나라 때 지어진 것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 토인거혈유적지

투안쥬세이즈 | 土人居穴遗址

석암동굴로 초기 토인들이 거주하던 유적지이다. 과거에는 그 규모가 매우 컸지만 흙이 축적되며 현재의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었다.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이 동굴 속에 긴 머리에 맨발을 하고 가족을 입고 세나 짐승들의 울음소리 같은 말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한다.







Zhangjiajie  
Travel

## 홍석림

홍쓰린 | 红石林



홍석림은 이름 그대로 기묘하고 거대한 붉은 바위들이 모여서 하나의 숲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차를 타고 산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마치 아무도 살지 않을 것만 같은 곳에서 느닷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홍석림은 그 만큼 생경하고 희귀한 모습을 우리 앞에 펼쳐놓는다. 호남성 구장현古丈縣에 위치한 홍석림 국가지질공원은 광대한 중국에서도 유일한 '적색탄산염석림'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질 연구와 여행지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 홍석림의 돌바위들은 날씨에 따라 매일매일 조금씩 그 색을 달리한다. 화창한 날에는 더욱 빨간색을 띠고 비가 내리는 날에는 검정, 흐린 날에는 적갈색으로 변한다. 또한 아침, 저녁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계절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색을 달리한다. 이렇듯 홍석림이 기이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은 4억 5천 년 전의 지각변동에 의해 당시 바다 속에 잠겨있던 붉은 탄산염炭酸岩이 물으로 나와 퇴적과 침식 작용 등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붉은 돌 사이사이에 협곡과 샘, 광장과 연못 등을 창조하여 우리의 눈을 더욱 즐겁게 해주고 있다. 상주하고 있는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관람할 수 있고, 길게는 약 1시간 코스로 짧게는 약 20분 코스를 선택하여 둘러볼 수 있다. 부용진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부용진과 함께 당일 코스로 일정을 잡으면 좋다. 입장료는 148위안.

위치 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古丈县古丈县X025



### 오도해저 아오타오하이디 | 奥陶海底

지금으로부터 약 4.8억 년 전의 오르도비스 시기, 이곳은 망망대해였다. 모양이 평탄한 석회암층이 침적 후 압착되었고, 수직방향으로 틈이 생기면서 암석을 그물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후로 지각이 상승하고 유수침식, 카르스트 작용으로 이러한 경관이 생겨났다.



### 양자고해 양쯔구하이 | 扬子古海

모양이 평탄한 석회암층이 침적 후 지각운동을 거치며 암층이 압착되었고 수직방향으로 틈이 생기면서 암석을 그물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유수가 틈새를 따라 카르스트 침식작용을 일으키면서 틈새를 더 깊고 넓게 만들었다. 그 후로 지각이 상승하면서 암석층이 지표면에 노출되었고 다시 유수에 침식되어 지금의 중형으로 교차된 석림의 경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 천지, 인지 티엔츠, 런츠 | 天池, 人池

세 개의 카르스트 지형으로 유수침식과 카르스트 작용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지, 인지, 자지로 구성되어 있다.





Zhangjiajie  
Travel

## 먹용묘채

모롱마오짜이 | 墨戎苗寨



고대 상서지구의 중요한 군사기지였던 먹용묘채는 장가계에서 약 130km, 봉황현에서 약 80km 떨어진 지점에 자리 잡은 묘족 자치주 구장현(古丈县)에 위치하고 있다. 서호 남성에서 가장 큰 묘족마을로 알려진 먹용묘채의 입구에 닿으면 아담한 마을 풍경이 작은 강을 건너 그림처럼 펼쳐진다. 차 한 대도 지나가기 어려운 다리를 지나 한데 모여 있는 이 마을은 접근이 어려운 지리적 조건 때문에 외부인들의 진입이 쉽지 않은 곳이었고, 어떠한 적도 이 마을을 쉽게 함락시킬 수 없었다고 한다. 때문에 먹용묘채에는 묘족의 순수성이 지금도 잘 남아있고 묘족의 문화와 건축, 생활 습관, 전통과 풍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을로 남아있다. 마을에 들어서면 여전히 묘족의 전통복장을 하고 있는 이들을 골목에서 마주칠 수 있고, 꾸밈없이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묘족이 역귀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당도 이곳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볼거리이다. 사람과 신 사이의 사도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자 묘족 문화의 계승자인 '바대'와 그들의 제사 문화도 함께 엿볼 수 있다. 마을에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이곳을 밟고 지나가면 관운과 재물운이 넘쳐나며 평생 평안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 국가 3A 풍경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으로는 지서우 시(芷江)에서 20분 정도 버스를 타고 찾아갈 수 있다. 별도의 입장료를 내야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출입이 가능하다.

위치 湖南省湘西州古丈县墨戎镇 299省道旁



CHINA 중국여행 시리즈 01

## Zhangjiajie Travel

장가계 | 张家界

|     |                                                 |
|-----|-------------------------------------------------|
| 발행처 | 중국국가여유국 서울지국, 장가계시 여유 및 외사교무위원회(张家界市旅游和外事侨务委员会) |
| 총괄  | 李保荣(리바오룽), 란저핑(란저핑)                             |
| 기획  | 李洪国, 신술아, 김효정                                   |
| 편집  | 김관수                                             |
| 글   | 김관수, 박건우                                        |
| 사진  | 김관수, 박건우, 장가계시 여유 및 외사교무위원회                     |
| 디자인 | ㈜명문기획                                           |

- 이 책의 저작권은 중국국가여유국 서울지국에게 있습니다.
- 허가없이 이 책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